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문요약

중국경제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제일 심각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중국의 금융산업이 후진적인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선진국의 경제환경에 적합하다는 산업 자체의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정부가 경제발전전략에서 금융산업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보험산업은 은행, 증권 등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개방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중국의 보험산업은 중국사회의 개혁과정, 즉 사회복지제도 개혁이 보험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앞으로의 발전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의 보험시장은 소수의 국유보험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이다. 재보험을 제외한 생명 및 손해보험시장에서는 中國人壽保險公司, 中國人民保險公司, 太平洋保險公司, 平安保險株式有限公司 등이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다. 1990년대 이후 외국보험사의 시장접근이 허용되기는 하였지만,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보험사는 시장진출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향후 2~3년내 대부분의 진입장벽이 철폐되면 외국보험사의 진출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그동안 정부가 담당하던 암묵적인 보험기능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전체 보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

외국보험사는 수익성 면에서 중국보험사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안정성 면에서도 세계 굴지의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보험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지화된 보험사만이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보험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본 연구는 WTO 가입 이후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예상되는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기진출한 외국기업의 진출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의 진출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는 한편, 관련 정부부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중국 연구분야에서 중국 보험시장에 대한 접근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었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보험시장에 접근해보았다. 둘째,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을 중국 내부의 시각과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동시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중국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한국보험회사는 외국보험사에 비해 진출시기는 다소 늦었다. 2000년 들어 최초로 중국시장에 진출했을 뿐이다. 한국 보험회사들은 짧은 진출시기의 보완을 위해 향후 중국보험사 및 감독기관과의 합자와 교류를 강화하고 아울러 중국시장에 대한 상세한 시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 문화, 도덕관 등 공통점이 많고 양국 정부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보험사의 중국 진출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양호한 브랜드이미지를 창출하고, 동시에 방관적인 이익추구자가 아니라 중국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주도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차 례

국문요약	1
I. 서 론	9
II.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과 특징 분석	13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	13
2. 보험업종별 현황 분석	20
3. 보험중개업의 발전	30
4. 중국 보험시장의 규모 분석	36
III.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 분석	46
1. 보험시장의 경쟁실태	46
2. 보험기구별 특징 분석	52
3. 중국보험사와 해외보험사의 경쟁력 비교	56
4. 중국보험사의 경영능력 분석	61
IV.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보험시장의 구조 변화	66
1. WTO 가입에 따른 합의사항	66
2. WTO 가입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69
3. 보험관리감독부문에 미치는 영향	73

V. WTO 가입과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76
1.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현황과 특징	76
2. 보험시장 개방정책의 변화	82
3. 외국보험사의 경쟁력 평가	89
4.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전망	93
VI. 한국보험사의 중국 진출에 대한 시사점	94
1. 투자방식의 선택	94
2. 브랜드이미지의 강화와 현지화	99
3. 중국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102
4. 한·중 관계의 특수성	105
참고문헌	106
Executive Summary	107

표 차례

<표 II-1> 최근 제정된 보험 관련 법규 목록	17
<표 II-2> 손해보험시장의 발전 추이	21
<표 II-3> 생명보험시장의 발전 추이	23
<표 II-4> 베이징시 생명보험시장 현황(2000년)	25
<표 II-5> 상하이시 생명보험시장 현황(2000년)	25
<표 II-6> 생명보험의 신상품 및 전통상품 판매실적 비교	26
<표 II-7> 생명보험의 신상품 판매구조(2001년)	27
<표 II-8> 중국과 주요국과의 보험료수입 비교(2000년)	36
<표 II-9> 중국과 주요국과의 보험밀도 비교(2000년)	38
<표 II-10> 중국과 주요국과의 보험심도 비교(2000년)	39
<표 II-11> 중국의 연도별 GDP와 보험료수입 추이	41
<표 III-1> 중국과 아시아 주요국간의 시장집중도 비교(1998년)	48
<표 III-2> 중국과 동유럽국가의 시장집중도 비교(1998년)	48
<표 III-3> 행정구역별 보험시장 집중도(2000년)	49
<표 III-4> 중국생명의 보험종류별 수입구조(2000년)	50
<표 III-5> 연도별 보험기구의 증가 추이	51
<표 III-6> 중국 보험사의 보험종류별 수입 현황(2000년)	55
<표 III-7> 세계 10대 보험사와 중국보험사의 자산 비교(1998년)	56
<표 III-8> 중국과 주요국의 생명보험자금 투자구조 비교	59
<표 III-9> 중국 손해보험공사의 자기보유보험능력 현황	62
<표 V-1> 2000년 외국보험회사 업무실적	79
<표 V-2> 2000년도 외국보험사 재무 현황	81
<표 VI-1> 중국과 주요국 은행의 생명보험 판매율(2001년)	103

그림 차례

<그림 II-1> 중국의 보험료수입 추이: 1989~2000년	15
<그림 II-2> 1989~2000년 중국 보험료수입의 증가율	16
<그림 II-3> 2000년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수입 비중	21
<그림 III-1> 중국내 각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비교(2000년)	47
<그림 III-3> 그룹지주회사의 조직도	60
<그림 III-4> 전업지주회사 모델	60
<그림 III-5> 중국보험사의 펀드투자 비중	64
<그림 V-1> 외국보험회사 성장도	80
<그림 V-2> OECD국가의 외국인 독자보험사 비율	87
<그림 V-3> OECD국가의 외국 생명보험사 시장점유율 현황	88
<그림 V-4> OECD국가의 외국 비생명보험사 시장점유율 현황	88
<그림 VI-1> OECD국가에 진출한 외국보험사 중 합작투자 비율	96

I. 서 론

지난 2001년 12월 중국은 마침내 WTO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은 1978년 12월의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중국 경제를 한 차원 더 발전시키는 계기라고 평가할 수 있다. 1970년대 말의 개혁·개방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면, WTO 가입은 앞으로 시스템으로서의 사회주의는 사라지고 오직 시장경제체제만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사실 지난 20년간의 개혁·개방은 더 이상 강조하지 않더라도 중국경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성 등 도시지역의 발달과 도시민의 생활수준 향상 그리고 세계 어느 시장에도 진출해 있는 중국산 제품들은 중국경제가 그동안 얼마만큼 발전하였는지를 증명한다.

그런데 지난 개혁·개방정책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면, 시장경제가 도입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있는 그 배경에 중국정부의 경제발전계획(또는 정책)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정부는 자신의 목적에 따라 자원을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성장잠재력이 큰 부문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중국경제와 관련된 많은 전문가는 중국의 서비스산업이 낙후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서비스산업 중에서도 금융산업의 낙후성이 제일 심각하다는 데 대부분 동의한다. 중국의 금융산업이 후진적인 이유는 금융산업의 발전이 선진국의 경제환경에 적합하다는 산업 자체의 특성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중국정부가 경제발전전략에서 금융산업을 소외시켰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지난 20년간의 개혁·개방은 전체적으로는 중국경제를 괄목할 만큼 성장시켰지만,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하였다.

WTO 가입은 중국 금융산업의 입장에서 또 하나의 개혁·개방이다. 금후 4~5년내로 중국의 금융산업은 지난 20년간의 개혁과 발전과정에서 겪은 변화보다 더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산업 중 보험산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보험산업은 은행, 증권 등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개방의 충격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중국의 보험산업은 다른 금융업과는 달리 ‘체제전환과정’과 산업의 발전이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국가경제가 성장하고, 자체적인 개혁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면 해당 산업은 성장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산업의 경우 현 중국사회의 개혁과정, 즉 사회복지제도의 개혁이 보험의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따라서 다른 금융산업에 비해 앞으로의 발전속도가 더 빠를 가능성이 크다.

현재 중국의 보험시장은 소수의 국유보험사가 장악하고 있는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이다. 재보험을 제외한 생명 및 손해보험시장에서는 中國人壽保險公司, 中國人民保險公司, 太平洋保險公司, 平安保險株式有限公司 등이 90% 이상의 시장을 점유한다. 1990년대 이후 외국보험사의 시장접근이 허용되기는 하였지만, 매우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외국보험사는 시장진출 이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WTO 가입으로 향후 2~3년내 대부분의 진입장벽이 철폐되면 외국보험사의 진출은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으로 그동안 정부가 담당하던 암묵적인 보험기능이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 전체 보험시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커지게 된다.

그런데 한국기업을 포함한 외국보험사의 입장에서 중국 보험시장의 발전공간 확대가 곧바로 보험료수입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행동은 제조업체들과 차이가 있으며, 보험상품은 다른 금융상품에 비해서도 더욱 특수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상품의 판매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지만, 보험상품은 여기에 브랜

드이미지 즉 보험사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성이 추가된다. 소비자들이 보험을 선택하면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외국보험사는 수익성 면에서는 중국보험사에 비해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안정성 면에서도 세계 굴지의 보험사들은 소비자에게 깊은 인상을 줄 것이다. 그러나 중국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로부터 하여금 자신이 선택한 보험사가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현지화된 보험사만이 중국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중국 보험시장의 현실을 직시하여 본 연구는 WTO 가입 이후 대폭적인 시장개방이 예상되는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고, 기진출한 외국기업의 전략을 분석하여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에 도움을 주는 한편, 관련 정부부처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국내의 중국 연구분야에서 중국 보험시장에 대한 접근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없었다. 본 연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 보험시장을 접근해보았다. 둘째,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다양한 분석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보험시장의 대외 개방을 중국 내부의 시각과 외국기업의 입장에서 동시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중국의 연구진이 공동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한국보험사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진출방안을 모색해보았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II장에서는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과 현황을 분석한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중국의 보험산업을 손해보험, 생명보험, 재보험으로 구분하여 각 업종의 현황을 분석한다. 또한 중국 보험시장을 보험밀도와 보험심도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보고, 향후 잠재력을 평가한다.

III장에서는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으로 현 중국보험시장의 경쟁구도를 고찰하고, 중국보험사와 외국보험사의 양적·질적 경쟁력 차이를 분석한다. 또한 중국보험사간의 경영능력도 비교, 분석한다.

IV장은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보험시장의 구조 변화를 분석, 전망한다.

V장에서는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현황과 향후 전망을 다룬다. 지금까지 외국보험사의 진출과정을 정리하고, 중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의 경쟁우위요인과 열위요인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VI장에서는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보험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우리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투자방식을 찾아보고, 현지화의 중요성과 현지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적 선택을 제언하면서 결론을 맺는다.

II.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과 특징 분석

중국의 보험산업은 금융산업 중에서도 그 발전역사가 비교적 짧은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은 신중국 설립 이전인 중화민국시대에 외국보험사를 중심으로 보험산업이 형성되었지만, 공산당이 정권을 잡으면서 과거의 보험업무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에서는 국가가 보험의 업무를 대신하였으나, 개혁·개방 이후 보험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의 보험산업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시장경제의 도입과 대외개방의 확대에 따라 빠른 성장을 하고 있으며, 보험시장의 구조도 과거의 밀폐·독점형에서 개방·경쟁형으로 바뀌고 있다.

본장에서는 우선 중국 보험산업에 대한 개혁·개방과정과 보험기구의 시장 포지셔닝(positioning), 그리고 경쟁구조의 변화추이를 분석해본다. 또한 각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고, 시장구조의 독점 및 경쟁구도에 대한 현황을 분석한다.

1. 개혁·개방 이후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과정

신중국 설립 이후 개혁·개방이 실시되기 전까지 중국의 보험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의 ‘중국인민보험공사’는 당시 인민은행 본점에 속해 있는 하나의 처(處)에 불과하였으며, 해외보험만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1979년 개혁·개방이 시작되면서 보험산업은 조금씩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1979년 개최된 중공 11기 3중전회에서 중국정부

는 국가정책의 중점을 경제건설에 두는 것으로 결의하고, 전면적인 경제체제 개혁을 시작하였다. 같은 해 인민은행 전국 지점장회의에서는 국무원의 승인을 거쳐 중국인민보험공사의 기능을 ‘회복’시킨다는 결의를 채택한 후 중국보험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시 인민보험공사는 국무원에 직속된 局級의 경제기구로 등록자본금은 20억 위안이었다. 경제체제 개혁과 개방정책 실시로 경제 각 부문에서 보험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민보험공사의 업무범위도 확대되어 국내외 보험과 재보험업무도 급속히 발전하였다.

개혁 초기인 1980~86년에는 인민보험공사가 보험시장을 완전독점하고 있었다. 이 기간 보험산업 발전의 중점은 보험업무의 회복과 시장탐색에 있었는데 산업 자체의 발전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았다. 1986년 인민은행이 ‘新疆兵團 보험공사’의 설립을 승인하면서 보험시장의 독점적 구도는 변화를 맞게 된다. 이어 1988년과 1991년에 각각 ‘중국 平安 보험공사’와 ‘중국 太平洋 보험공사’가 잇따라 설립되면서 중국 보험산업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되었다.

또한 중국 전역에 산재해 있던 ‘人民公司’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역적 성격의 주식제 보험회사가 연이어 설립되었다.¹⁾ 그리고 1992년 AIG가 최초로 상하이에 지점을 설립하면서 보험업의 대외개방도 시작되었다.

가. 중국 보험산업의 현황

1) 시장규모의 확대

개혁·개방 이후 중국 보험산업은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실현하게 된다. 중국 보험산업의 보험료수입은 1980년에는 6.4억 위안에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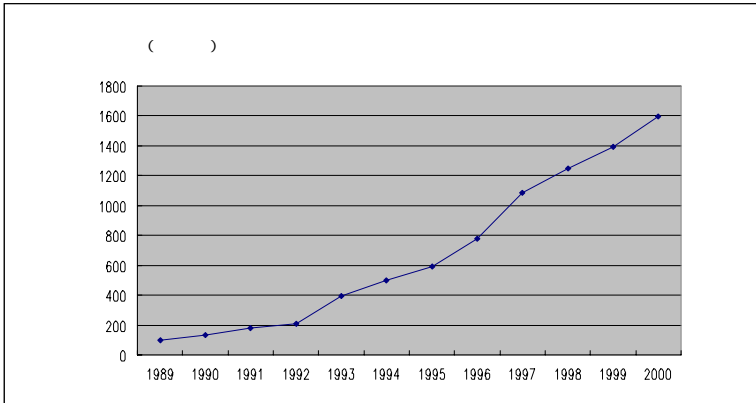
1) 인민공사란 1958년 설립된 중국 농촌의 사회생활 및 행정조직의 기초단위로, 주민들의 경제, 교육, 군사, 복지 등을 책임지는 기구임.

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2,109억 위안으로 증가하여 연평균 32%의 높은 성장률을 시현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GDP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또한 1980년에는 보험료수입의 GDP 비중(즉 保險深度)이 1%에 불과하였으나, 2001년에는 2.2%로 늘어났다. 1인당 보험료(즉 保險密度) 역시 1980년 0.47위안에서 2001년에는 169위안으로 21년간 360배나 늘어났다.

<그림 2-1>과 <그림 2-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1990년대 중국의 보험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빠르게 성장하였다. 보험료수입이 500억 위안에 도달하기까지는 15년이 소요되었지만, 여기에서 1,000억 위안까지 늘어난 데에는 3년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은 보험산업이 고성장단계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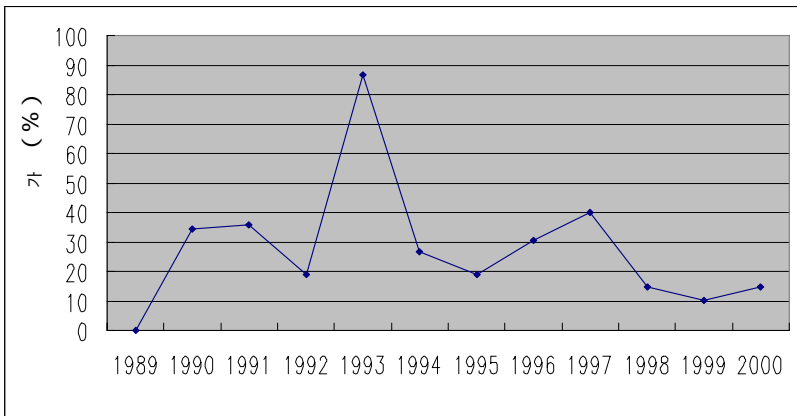
(그림 II-1) 중국의 보험료수입 추이(1989~2000년)



한편 2001년 말 현재 중국 보험시장에는 보험공사 52개(이 중 외자보험사 32개)가 있으며, 이들의 대리점 및 영업소가 각각 2만 8천 개 및 4,700여 개 있다. 또한 2000년 말 기준으로 보험대리회사 43개, 보험중개회사 9개, 손해사정회사 5개, 겸업대리기구 6만 개 등이 있다. 보험종류별로 모

집 방식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료수입의 40%가 겸업대리기구와 농촌대리점에서 발생하고 생명보험은 보험료수입의 80%가 영업직원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림 II-2〉 1989~2000년 중국 보험료수입의 증가율



자료: 馬鳴家(1994), 『중국보험시장』; 『중국보험연감』(1996-2001).

2) 법규정 및 감독체계의 형성

1995년 이후 보험법과 관련된 법률과 규정이 제정되면서 중국 보험산업은 비로소 법에 의한 경영과 감독이 가능해졌다. 특히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1998년 설립된 이후에는 모두 200여 개의 각종 규정이 제정되었다. 보감위는 국무원 직속기관으로 중국내 모든 보험기구에 대한 관리, 감독을 책임지는데, 보감위가 설립되기 전에는 인민은행이 그 역할을 대신하였다. 보감위의 업무는 이것 이외에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업무를 분리하고, 국유독자 보험공사를 주식제 기업으로 개조하는 일도 있다. <표 II-1>는 1998년 이후 제정된 보험 관련 법규를 정리한 것이다.

〈표 II-1〉 최근 제정된 보험 관련 법규 목록

보험법 및 규정	관련 법 및 규정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중화인민공화국 해상법 △보험대리인 관리규정 △보험중개인 관리규정 △보험관리 임시규정 △보험공사 관리규정 △보험기구 고위관리층 임명자격 관리 임시규정 △외자보험기구 중국대표기구 관리방법 △자동차보험 강제 單證 관리방법1) △보험공사 회계제도, △보험평가인 관리규정 △외자보험공사 관리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경제계약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사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합자경영 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주: 자동차보험에 관련된 보험증서나 영수증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이를 통일된 양식 (單一證書)으로 인쇄, 배포하기 위한 규정.

나. 중국 보험산업의 문제점

개혁·개방 이후 중국 보험산업이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적인 기준에서는 아직 미성숙된 유치산업에 불과하다. 또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과정 속에서 발전하였기 때문에 외형적 성장을 제외한 질적인 발전은 더욱 미약하다.

첫째, 지역별, 산업별 발전이 불균형하다.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경제가 발전한 지역에서는 보험업의 발전도 빠른 반면, 전반적인 경제가 낙후된 지역에서는 보험업도 발전하지 못하였다. 2000년 베이징, 상하이, 장쑤, 저장, 산둥, 광둥 등 6개 지역의 보험료수입은 중국 전체의 50%를 차지하였다. 반면 나머지 지역의 비중은 이 지역들에 비해 크게 낮다.

산업구조측면에서 소수의 국유보험사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들을 제외한 보험사는 나머지 시장지분을 놓고 경쟁하는 상황이

다. 재보험시장의 경우 중국재보험공사만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실제로 재보험시장에서는 법정재보험(分保)을 제외한 나머지 재보험은 대부분 외국의 재보험회사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또한 보험중개시장에서는 현재 보험모집인의 수는 크게 늘었지만, 제대로 된 전업 중개기구는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 보험중개공사와 손해사정공사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초보적인 수준으로 제대로 된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보험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회계사무소, 법률사무소, 보험컨설팅사, 보험신용평가사 등도 아직 설립되지 않았다.

둘째, 보험세수정책의 왜곡이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국유보험사의 보험시장 독점을 유지해주는 한편, 이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독점이윤의 일부를 거둬들였다.

현재 보험사의 소득세율은 은행이나 증권사의 33%보다 높은 55%이며, 영업세율도 비록 2001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인하되기는 하였지만 5%로 국제기준에 비해 여전히 높다. 뿐만 아니라 영업세의 부과대상측면에서도 보험업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은행업의 경우 영업세가 예금액이 아닌 이자수입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보험업은 배상금을 포함한 보험료 수입총액을 기준으로 영업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낮은 편이다. 중국정부는 1997년에야 비로소 기업보험에 대한 세제혜택조치를 실시하였는데 손해보험 가운데는 자동차보험과 재산보험만을 비용으로 인정하였고, 생명보험의 경우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근로자의 양로보험만을 비용으로 인정해주었다.²⁾

이처럼 중국정부가 보험산업에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보험시장이 기본적으로 독점체제로 초과이윤을 얻고 있으며, 이러한 초과이윤을 세금화하여 정부로 이전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정부의 높은 세금은 보

2) 근로자의 양로보험료는 전체 임금총액의 5% 수준임.

험사로 하여금 더 높은 보험금과 더 낮은 보험료를 강제하여 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유발하였으며, 민간으로 하여금 보험상품을 필수품이 아닌 사치품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셋째, 국내보험사의 경직적인 경영구조와 효율성 부족이다. 경영능력 면에서 중국보험사는 보험상품의 종류가 단순하고, 각 회사간 상품의 차별성이 거의 없다. 또한 지분의 대부분을 국가가 소유하고 있어 내부적인 구조조정이 쉽지 않다.

위험관리측면에서 중국보험사는 대부분 위험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인력관리측면에서는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도 어렵고, 외국기업에 이 우수인재들을 쉽게 유출시키는 현상이 빈번하였다.

넷째, 보험산업의 발전속도에 비해 보험감독위원회의 감독역량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보감위 설립 자체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경험과 인재도 부족하다.

감독방식에 있어서도 문제점은 존재한다. 중국의 보험감독은 주로 시장 진입조건, 보험요율 개정관리 등 각 보험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위주이다. 그러나 피해시 해당 보험사의 보험금 지불 가능성, 자산부채비율의 개선, 위험관리능력과 같은 질적인 차원에서의 관리감독기능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관련 법규 역시 대부분 개방 초기인 1980년대 초에 만들어져 현 경제상황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수준과도 상당한 차이가 난다.

다섯째, 중국 보험회사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소질이 떨어지는 것도 중국 보험산업 발전을 제약하고 있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1999년 말 현재 보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30만 명인데, 이 중 대졸 이상의 학력자는 20%에 불과하다. 이것은 중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의 동 비율이 50%인 것과 상당한 차이이다.

2. 보험업종별 현황 분석

가. 손해보험

2000년 말 기준으로 현재 중국의 손해보험사는 18개로,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회사 4개, 지역보험회사 5개, 외자보험회사 9개 등이다. 손해보험은 1980년 중국의 보험사가 업무를 재개한 이후 제일 먼저 허용된 상품이다. 당시 보험료 기준으로 손해보험은 전체 보험시장의 8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후 생명보험시장이 성숙되면서 점차 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은 하락하였는바 1997년 50%, 1998년 37.4%, 2001년 32.5%로 떨어지게 되었다(표 II-2 참조). 1990년 중반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정부의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가장 큰 고객인 국유기업의 경영상황이 이전에 비해 어려워졌다. 이에 손해보험의 수요가 줄어들고, 보험상품의 단순성과 상품개발 부족이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발전에 따라 손해보험시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현상으로 그 자체가 중국 보험시장의 문제점은 아니다.

손해보험상품은 생명보험상품에 비해 신상품의 개발이 더딘 편인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상품으로는 가계보험, 기업보험, 해상보험, 공정보험, 자동차보험, 화물운송보험, 대중책임보험, 제품책임보험, 고용주책임보험, 직업책임, 신용보험 등이 있다. 이 중 기업보험, 자동차, 화물운송 등 세 가지 보험이 주력 상품이다. 제품책임, 고용책임, 직업책임 등 책임보험상품의 경우 현재 시장수요가 비교적 큰 편이나 동 상품의 약관 및 보험료 책정 등에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그 규모는 그리 크지 않다.³⁾

3) 그밖에 일부 비보험회사가 특권을 이용하여 손해보험업무를 취급하기도 하는데 철도회사가 보험회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화물수송보험을 판매하기도 함. 이러한 불법 판매행위가 손해보험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시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건전한 발전을 저해함.

<그림 II-3>은 손해보험의 종목별 보험료수입을 나타낸다. 자동차보험의 수입(376억 위안: 61%)이 가장 많고, 이어서 기업손해보험(120억 위안: 20%) 등 전통적인 상품의 보험료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II-2〉 손해보험시장의 발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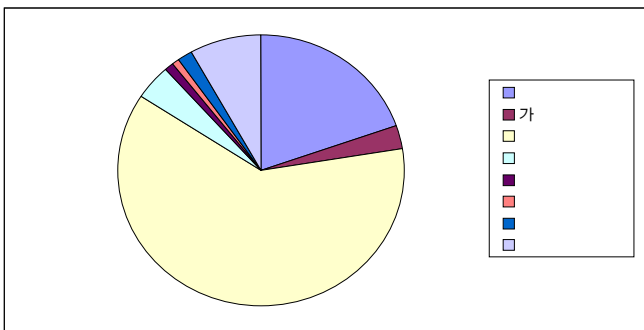
(단위: 억 위안)

연도	손해 보험료수입	증가율(%)	총보험료수입 (손보+생보)	손해보험 비중(%)
1989	78.05	-	97.63	79.94
1990	106.76	36.78	135.17	78.98
1991	136.83	28.17	178.24	76.77
1992	47.40	7.72	211.69	69.63
1993	251.40	70.56	395.47	63.57
1994	336.90	34.01	500.35	67.33
1995	390.70	15.97	594.90	65.67
1996	452.49	15.82	776.60	58.27
1997	485.99	7.40	1,087.95	44.67
1998	499.60	2.80	1,247.30	40.05
1999	521.12	2.93	1,393.22	37.40
2000	598.40	14.80	1,595.90	37.50
2001	685.39	14.57	2,109.36	32.49

자료: 1989~92: 馬鳴家 『중국보험시장』(1994)

1993~2000: 『중국보험연감』; 1996~2001: 『중국보험』(2001, 1期, p. 3)

〈그림 II-3〉 2000년 손해보험 종목별 보험료수입 비중



자료: 『중국보험연감』(2001)

나. 생명보험

1) 생명보험시장의 성장

개혁·개방 초기인 1980년대만 해도 생명보험시장의 규모는 손해보험시장에 비해 매우 작았다. 1989년에도 생명보험의 보험료수입은 전체 보험료수입의 약 20%에 불과하였으며 상품구조도 단기형 상품이 대부분이었고, 장기 상품의 판매는 거의 전무하였다.

그러나 1990년도 이후 경제발전과 함께 주민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비자의 보험수요가 늘어나고 생명보험시장도 빠르게 성장하였다. <표 II-3>는 1989년부터 2001년까지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발전 추이를 보여주는데, 1997년을 기점으로 생명보험의 보험료수입이 처음으로 손해보험을 초과한 후 매년 그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생명보험이 단기간에 급성장하게 된 것은 경제성장과 가처분소득 증가에 따른 보험수요의 증가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지만,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개인생보 영업대리제도’의 보급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개인영업 대리방식은 미국 AIA의 상하이지사가 1992년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중국에서는 平安보험공사가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였다.

대리제도의 확대에 따라 대리점이 모집한 생명보험료수입도 크게 늘었는데 1996년에는 그 규모가 40억 위안이었지만, 1998년에는 전체 수입의 80%에 해당하는 약 540억 위안에 달하였다. 2001년 9월 현재 전국적으로 생명보험 영업부는 4,630여 개, 겸업대리점은 6만여 개, 전업대리점은 2만 8천개, 그리고 보험모집인은 약 50만 명에 이른다.⁴⁾

4) 馬永僞(2001) 참조

〈표 II-3〉 생명보험시장의 발전 추이

(단위: 억 위안)

연도	생명보험 보험료수입	증가율(%)	총보험료수입 (손보+생보)	생명보험비중 (%)
1989	19.58	-	97.63	20.06
1990	28.41	45.10	135.17	21.02
1991	41.41	45.76	178.24	23.23
1992	64.29	55.25	211.69	30.37
1993	144.07	124.09	395.47	36.43
1994	163.45	13.45	500.35	32.67
1995	204.20	24.93	594.90	34.33
1996	324.62	58.97	776.60	41.80
1997	601.96	85.44	1,087.95	55.33
1998	747.70	24.21	1,247.30	59.95
1999	872.10	15.00	1,393.22	62.60
2000	997.50	14.40	1,595.90	62.50
2001	1,423.97	42.76	2,109.36	67.51

자료: 1989~92: 馬鳴家 『중국보험시장』(1994)

1993~2000: 『중국보험연감』; 1996~2001: 『중국보험』, (2001, 1期, p. 3)

한편 생명보험시장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성장률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보험사 스스로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품(예: 단체보험)을 폐지하는 등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둘째, 1990년대 초반에는 생명보험사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보험상품의 강매현상이 벌어져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는데 1990년대 후반부터는 이러한 현상이 사라졌다. 따라서 강매에 따른 보험판매가 감소하면서 전체 판매에도 영향을 주었다.

셋째, 소비자의 보험소비에 대한 의식이 합리화, 이성화되어 자신의 소비계획에 따라 보험 가입을 선택하기 시작하였다.

넷째, 일부 연해지역에서는 그동안의 성장으로 신규시장 개발이 포화상

태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광저우시의 경우 1998년도 보험심도가 1.88%로 세계적으로도 중등국 수준에 접근하였다.

다섯째, WTO 가입에 따라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보험서비스를 기대하면서 보험 가입을 미루었다.

2) 생명보험시장의 구조

2000년 말 현재, 중국에는 국내외 보험사를 합하여 26개의 생보사가 있으며 이 중 중국생명(中國人壽), 平安보험, 太平洋보험 등 3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95.8%에 달하는 등 전형적인 독과점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 3개 보험사 중 중국생명은 국유독자 생명보험공사로 65%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한다.

그런데 생명보험시장의 구조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각 업체의 지역별 시장점유율은 전체 구조와 약간 차이를 알 수 있다. 시장경쟁이 심한 베이징, 상하이, 톈진, 다롄 등 4대 도시에서는 중국생명의 시장점유율이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50% 수준이며, 특히 베이징은 20%에 불과하다. 베이징의 경우 평안 등 일부 보험사의 점유율이 중국생명의 그것을 초과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중국생명이 과거 전국적으로 영업망을 확장하는 경영전략을 사용한 것에 비해 평안 등은 일부 대도시에 영업망을 집중시켰기 때문이다(표 II-4 참조). 상하이시 생명보험시장에서도 평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았으며, 외국보험사인 AIA의 점유율도 3위를 기록하였다(표 II-5 참조).

〈표 II-4〉 베이징시 생명보험시장 현황(2000년)

(단위: 억 위안, %)

회 사	보험료수입	시장점유율
중국생명(中國人壽)	13	20.2
태평양(太平洋)	8	12.4
평안(平安)	24.6	38.1
태강(泰康)	5.7	8.8
신화(新華)	13.2	20.5
합 계	64.5	100%

자료: 『중국보험연감』(2001)

〈표 II-5〉 상하이시 생명보험시장 현황(2000년)

(단위: 억 위안, %)

회 사	보험료수입	시장점유율
중국생명(中國人壽)	27.1	29.4
태평양(太平洋)	9.4	10.2
평안(平安)	40	43.4
AIA 상하이지사	12.2	13.3
기타	3.4	3.7
합 계	92.1	100

자료: 『중국보험연감』(2001)

3) 신상품의 등장과 그 특징

생명보험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보험상품도 다양화되었다. 1980년대에는 단순한 신체보험상품이 주종이었으나 1990년대 들어 교육, 혼인, 양로보험

등 장기성 상품이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후 은행금리가 크게 하락함에 따라 만기시 일정금리를 보장해주는 저축성 상품이 줄어들고, 투자보험, 배당보험, 만능보험 등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 것이다.

<표 II-6>은 2001년 1/4분기부터 2001년 4/4분기까지 투자, 배당, 만능보험 등 신상품과 전통적인 상품의 판매실적을 비교한 것이다. 2001년 1/4분기에는 전통상품의 판매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85.9%), 신상품의 판매가 점차 늘어나면서 1년 뒤인 2002년 1/4분기에는 신상품의 판매비중이 68.2%, 전통상품의 그것은 31.8%로 역전되었다.

<표 II-6> 생명보험의 신상품 및 전통상품 판매실적 비교

(단위: 억 위안, %)

	2001년 1/4		2001년 2/4		2001년 3/4		2001년 4/4		2002년 1/4	
	보험료 수입	비중	보험료 수입	비중	보험료 수입	비중	보험료 수입	비중	보험료 수입	비중
신 상품	38.6	14.1	96.8	26.1	99.8	31.5	184.4	39.8	456.7	68.2
전통상품	234.1	85.9	273.9	73.9	216.9	68.5	278.8	60.2	213.1	31.8

자료: 陳文輝(2002), 『中國壽險業的發展與監管』.

또한 신상품내에서의 판매구조를 살펴보면 <표 II-7>과 같다. 2001년 1/4분기에는 배당보험, 투자보험, 만능보험의 비율이 각각 54.2%, 26.7%, 19.2%이었다. 2001년 2/4분기에는 투자보험의 수입이 크게 늘어나기도 하였지만, 다시 배당보험의 비중이 높아져 1년 뒤인 2002년 1/4분기에는 이전에 비해 배당보험의 판매가 오히려 강화되고 다른 두 상품의 비중은 한 자릿수로 떨어졌다.

〈표 II-7〉 생명보험의 신상품 판매구조(2001년)

(단위: 억 위안, %)

구 분	2001년 1/4		2001년 2/4		2001년 3/4		2001년 4/4	
	보험료 수 입	비중	보험료 수 입	비중	보험료 수 입	비중	보험료 수 입	비중
배당보험	20.9	54.2	32.9	34.0	58.8	59.0	158.9	86.7
투자보험	10.3	26.7	53.9	55.7	26.4	26.5	16.0	8.7
만능보험	7.4	19.2	9.9	10.3	14.5	14.6	8.5	4.6
합 계	38.6	100.0	96.8	100.0	99.7	100.0	183.4	100.0

자료: 陳文輝 主編(2002), 『中國壽險業的發展與監管』.

이렇게 최근 개발된 상품 중 배당형 보험이 다른 상품에 비해 압도적인 판매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전통적으로 위험회피성향이 강한 중국인의 투자습관에 부응하였다. 둘째, 각 보험사가 경쟁적으로 배당형 보험상품을 출시, 고객의 관심이 높았다. 셋째, 고수익률을 내세운 투자형 보험과 만능보험은 대부분의 자금을 증시에 투자하였는데, 최근 중국의 증시상황이 좋지 않아 기대했던 수익률을 실현하지 못하여 고객의 관심이 멀어졌다. 넷째, 배당형 보험의 성격이 은행의 정기예금과 비슷하여 고객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와 신뢰성이 높았으며, 이로 인해 정기예금의 대체상품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보험사들이 소비계층별로 배당보험의 주 타깃은 위험회피적인 중산층, 투자 및 만능보험은 다소 위험선호적인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인 전략을 구사한 것도 각 상품의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

다. 재보험

1) 재보험시장 현황

재보험시장은 앞의 두 시장에 비해 그 발전과정이나 현재의 규모가 매우 작다. 1996년 이전에는 재보험을 ‘중국인민보험공사’의 ‘재보험부’가 담

당하였다. 그러나 1996년 ‘중국인민보험공사’가 개편되면서 전업 재보험공사인 ‘中保 집단 재보험공사’가 설립되었고, 1999년 3월 명칭을 ‘중국 재보험공사’로 바꾸었다.

따라서 현재에도 재보험을 전담하는 보험사는 ‘중국 재보험공사’ 하나만이 존재하며, ‘태평양보험공사’와 ‘평안보험공사’가 일부 재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이 3개 업체의 차이점은 중국재보험공사는 국내외 재보험을 자유롭게 취급할 수 있는 반면, ‘태평양’과 ‘평안’은 국내에서 법정재보험규모를 달성한 후 국제시장의 재보험을 취급한다는 것이다. 2001년 말 현재 중국내 재보험사는 모두 18개로 이 중 중국보험사가 10개, 외국보험사 8개이다.

중국 재보험사의 업무범위는 중국내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모든 영역으로 주로 신체사고보험, 장기생명 및 건강보험의 재보험, 자동차 및 손해보험의 재보험, 항공, 석유시추 플랫폼, 핵발전소 등 특수보험의 재보험, 각종 책임보험의 재보험 등 100여 가지에 이른다.

재보험 계약의 주요 형태로는 비례 및 불비례 재보험계약, 임시재보험계약, 초과손해재보험, 재재보험 등이 있으며 또한 고객의 재보험 가입 방안에 대한 설계를 협조하고 각종 보험의 보상기술과 국내외 재보험 시장 정보 및 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2년 1~9월간 중국재보험공사의 보험료수입은 143억 7천만 위안이며 이 중 법정재보험 및 상업재보험 수입이 각각 134억 6천만 위안, 9억 1천만 위안이었다. 또한 배상금액은 73억 2천만 위안으로 대부분이 법정재보험 보상금이었다.

중국의 보험회사들은 보험법 98조, 99조, 101조 규정에 따라 중국재보험공사에 법정재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太平洋 및 平安 보험공사는 자체적으로 법정재보험 외의 다른 형식의 재보험업무를 취급할 수 있으나, 그 외의 보험사들은 규정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국재보험공사에 재보험을 가입하도록 되어 있다.

2) 중국 재보험시장의 문제점

중국 재보험시장은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에 비해 그 발전정도가 더욱 낮으며, 국제기준으로 볼 때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재보험시장이라고 하기도 어렵다.

무엇보다도 재보험시장이 중국재보험공사라는 유일한 업체만이 존재하며, 극소수의 중개브로커만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재보험공사의 완전독점은 각 보험사간의 재보험 업무교류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라 재보험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그 업무를 담당할 중개인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둘째, 보험법의 「20% 의무 재보험 가입」 규정도 합리성이 결여되어 보험산업의 발전을 제한한다.⁵⁾ 동 규정은 비록 보험공사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안정된 경영을 보장하고는 있으나, 재보험 운용을 통한 보험사의 위험분산이라는 경영원칙에는 부합되지 않는다. 또한 자본금이 취약하여 재보험을 해외재보험사에 가입(出再)은 하지만 역으로 해외보험사로부터 재보험을 가입받지는(受再) 못하고 있다. 또한 중국재보험공사, 太平洋, 平安 보험공사의 경영규정이 서로 달라 공평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국내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재보험의 발전이 매우 느리다. 전체 재보험시장에서 국내시장과 국외시장의 비율은 6:94로 국내시장은 거의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2001년 기준).

넷째, 중국재보험공사 자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전형적인 독점기업으로 중국재보험공사는 그동안 효율성의 개선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WTO 개방프로그램에 따라 중국은 오는 2005년까지 재보험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야 한다.

5) 보험사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보험가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보험가입자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20%를 반드시 중국재보험공사에 재보험을 들어야 하는 규정임.

이에 중국정부는 중국재보험공사를 ‘중국재보험집단공사’로 개편한 후 산하에 ‘중국손해재보험주식회사’와 ‘중국생명재보험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개방에 대비할 예정이다.

3. 보험중개업의 발전

가. 보험모집인제도의 발전

국내보험서비스의 발전과 더불어 보험중개업도 같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다. 보험중개업은 개혁·개방 이후 다음과 같은 발전과정을 거쳤다.⁶⁾

첫 번째 단계는 1979년 4월에서 1988년 3월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중국의 유일한 보험사인 중국인민보험과 관련된 중개업무만이 있었다. 1985년 4월 「보험기업관리 임시조례」가 공포되었지만, 보험모집인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두 번째 단계는 1988년 4월에서 1995년 9월까지이다. 이 기간에는 平安 보험과 太平洋보험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보험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졌다. 이 시기 인민은행은 1992년 11월 「보험대리점 관리 임시규정」을 공포하여, 보험대리업무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당시 인민보험공사 소속의 省, 市, 縣 지사는 이미 담당지역에 전문대리점을 설립하고 보험영업을 시작하였지만, 대부분의 보험모집인은 타 금융기관 종사자로 보험모집을 겸직하였다.⁷⁾ 太平洋 및 平安 보험공사도 인민보험공사와 유사한 모집인제도를 택하였다.

6) 孫祚祥 等(2000), 『中國保險業: 矛盾,挑戰與對策』, p. 138.

7) 주로 공상은행, 교통은행 등 은행권 종사자들이 보험모집인을 겸직함.

보험모집인제도는 미국의 AIA가 1992년 상하이지사 설립 후 최초로 ‘개인 모집인제도’를 도입하고, 중국계 보험사들도 이 방법을 채택하면서 급속히 발전하였다. 개인 모집인제도는 보험모집인의 적극성인 상품 판매활동과 본사의 관리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세 번째 단계는 1995년 10월부터 현재까지이다. 이 시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보험모집인 관리 임시규정」, 「보험관리 임시규정」 및 「보험모집인 관리규정」(시행) 등의 규정이 제정되어 보험모집인제도의 법제화와 규범화가 촉진되었다. 현재 중국의 전문 보험대리공사(Independent Insurance Agency)는 모두 43개다.

나. 보험중개인 및 손해사정인

보험중개인(Insurance broker)은 광둥성 선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⁸⁾ 1993년 6월 이후 인민은행의 선전 경제특구지점과 선전시 공상행정관리국은 총 16개의 보험중개인회사의 설립을 승인하였고, 이어 다른 도시에서도 유사한 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손해사정회사는 1993년 인민은행 상하이 지점의 승인에 의해 설립된 ‘상하이 東方 손해사정공사’가 최초이며, 이어서 ‘상하이 大洋’, ‘톈진 北方’이 1994년에 각각 설립되었다.

현재 중국에는 보험중개인회사 8개, 손해사정회사 5개가 있으며 이밖에 전국적으로 각종 보험중개서비스를 담당하는 기구(보험중개인, 전업 및 겸업대리점 포함)가 23만 개, 중개서비스 종사자는 약 100만 명에 이른다. 또한 보험중개에 관한 법률로는 1998년 2월과 2000년 1월에 각각 공포된 「보험중개인 관리규정」(시행), 「손해사정인 관리규정」(시행)이 있다.

8) 보험중개인란 대리점 계약 없이 독립적으로 계약자와 보험상품계약을 중개할 수 있는 행위를 뜻함.

다. 보험중개인제도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중국정부는 1983년과 1985년 각각 「중화인민공화국 손해보험 계약조례」와 「보험기업관리 임시조례」를 제정하였다. 또한 1995년과 1996년에는 「보험법」과 「보험관리 임시규정」 등 보험산업에 관한 일반 법률을 제정하였다. 중개와 관련된 법규로는 1992년과 1996년 인민은행이 공포한 「보험대리점관리 임시방법」과 「보험모집인관리 임시규정」이 있다. 그리고 인민은행은 1997년과 1998년 각각 보험모집인과 보험중개인 등 중개기구의 감독을 위해 「보험모집인 관리규정」(시행)과 「보험중개인 관리규정」(시행)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관련 법, 제도의 마련에 힘입어 보험중개에 대한 감독기구도 점차 체계화되고 있다. 1998년 11월 ‘중국 보험감독위원회’가 설립되었고 아울러 동 위원회에 ‘보험중개업무 감독부’가 설치되었다.

한편 보험중개인의 자격심사 및 육성에 대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고 있다. 1995년 보험법 제정 이후 베이징과 상하이에서는 처음으로 보험모집인 자격시험제도를 마련, 1996년 처음으로 시험이 실시되었다. 또한 보험감독위원회는 1999년 제1회 보험중개인 자격시험을 실시하였다.

라. 보험회사의 자율기능 강화

1996년 9월 선전시 소재 6개 보험회사는 공동으로 중국 최초의 보험기구 자율서약인 「보험서비스 불공정 경쟁 방지에 관한 선전시 보험기구 서약」에 서명하여 공정한 경쟁을 약속하였다. 이후 4개월간 전국적으로 12개 지역(베이징, 상하이, 다롄, 선전, 광저우, 지난, 항저우, 청두, 톈진, 헤이룽장성, 충칭)에서 보험업협회 혹은 조합이 결성되었다. 또한 1997년에는 中保集團, 平安, 太平洋, 天安, 大衆 등 13개 보험사의 사장단이 ‘중국

보험업협회'를 설립하였다. 이는 중국 상업보험이 시장경쟁시스템을 도입한 이후 업계의 자각적인 자율기능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 보험중개시장의 문제점

현재 중국의 보험중개시장은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산재되어 있는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험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보험주체들의 자발적인 시장질서 회복이 필요하다.

첫째, 보험중개 주체가 불안정하다. 성숙한 중개시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중개인과 시장주체가 존재하기 마련인데 현재 중국의 중개시장은 보험모집인의 수는 많지만 보험중개인과 손해사정인은 그 수가 매우 적다. 또한 관련 감독기관의 정식 승인을 거치지 않고 활동하고 있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 보험모집인도 그 수는 많지만, 전문모집인의 수는 적고 대부분 겸업 및 개인모집인이다.

둘째, 보험중개인의 자질이 높지 않다. 보험모집인은 보험과 보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모집인은 기본적인 교육훈련과정만을 수료한 후 현업에 투입되고 있다. 직업도덕의 측면에서도 일부 모집인의 고의적인 탈법과 보험료 및 보상금의 남용과 착복, 강요와 유혹에 의한 보험계약 체결 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셋째, 보험중개인의 시장 진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우선 대부분의 보험모집인이 금융감독기관이 발급하는 '보험모집업무 영업허가증'이 없는 상태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 영업허가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사업허가증 없이 자문제공, 정보서비스, 대리수속 등을 명분으로 공상행정관리국에 등록한 후 여러 보험사와 대리계약을 맺는 경우가 빈번하다.

겸업 보험모집인은 대부분 정식 허가도 없이 보험사와 보험모집계약을 맺거나 심지어 계약도 없이 영업하였으며, 일부 브로커와 손해사정인도 허가증을 갖고 있지 않았다. 또한 보험모집인으로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업체든 개인이든 ‘보험모집인 자격증’이 필요하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재 약 50만 명에 달하는 모집인 중 60%만이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보험에 대한 기본지식도 없는 모집인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보험을 모집하여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넷째, 보험모집인의 불법적인 모집행위이다. 일부 겸업 모집인은 자신들의 직권을 남용하여 해당지역에서 보험모집을 독점하고, 다른 보험사나 개인모집인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한 일부 모집인은 이러한 독점적 성격을 이용하여 보험사로부터 초과 모집수수료를 요구하는 한편, 초과 수수료의 차이에 따라 자신이 담당하는 보험사의 업무를 차별적으로 처리하여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다섯째, 보험의 강매행위이다. 일부 모집인은 행정적인 권위를 이용하여 강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가입자의 동의도 없이 가입자 명의로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개선되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중국 민항 직원들이 탑승수속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탑승객에게 충분히 고지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수보험료를 받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행해졌다. 당시 탑승객은 대부분 이 보험료를 휴대품의 운반비용로만 알고 있었다.)

여섯째, 악의적인 보험모집행위이다. 「보험모집인 관리규정」에 따르면 모집인 스스로 보험에 가입할 경우 이는 보험공사가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집인은 대행 수수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¹⁰⁾ 그러나 일부 기업체는 자신을 겸업 모집인으로 하여 자체의 손해보험

9) 현재는 공항에서의 운수보험료 취급을 외부의 보험사가 담당하여 이러한 폐단이 사라짐.

10) 「보험모집인 관리규정」 제51조

가입을 대행하는 ‘자체 보험모집’을 하는데 이는 명백한 위법이다. 또한 일부 모집인이 가입자와 결탁하여 허위사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있다.

일곱째, 보험중개기구에 대한 관리감독기능이 매우 부족하다. 현 시스템에서는 보험중개기구에 대한 감독을 보험사의 교육과 관리에 맡기고 있는데 보험사가 자신의 영업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중개기구에 엄격한 감독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 문제에 있어서 보험업협회는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외 관련 법규의 미비를 악용한 중개시장의 부정행위들이 있는데 그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겸업 모집인은 원래 자신이 계약한 특정 보험사를 대행하여 수수료만을 받게 되어 있는데 보험사간의 경쟁관계를 악용하여 불법적으로 보험중개인의 업무인 보험중개역할까지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일부 모집인이 보험사의 승인 없이 보험을 판매한 다음 위험이 높은 보험계약은 보험사에 반환하고 위험이 낮은 보험은 보험료를 자신이 사취하는 사례가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보험은 보험사에게 반환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하고, 그렇지 않은 보험은 보험금을 횡령하기도 한다.¹¹⁾ 어떤 경우에는 개별 보험중개인이 계획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불법적으로 보험료를 받은 후 도주하는 일도 있었다.

셋째, 모집인들이 보험사간의 경쟁심리를 이용하여 개별 보험사와 ‘저보험료, 고수수료’ 조건으로 계약한 후 정상 보험료와 저보험료의 차액 및 높은 리베이트의 수수료를 본인이 착복한다.

넷째, 일부 모집인이 허가받은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보험모집을 하는 경우도 있다.

다섯째, 모집인이 기업고객과 공모하여 세금공제 영수증을 임의로 발행하기도 하였다.

11) 예를 들면 사고위험이 높은 자동차보험은 절차에 따라 보험사에 등록하지만, 사고위험인 낮은 생명보험, 질병보험 등은 보험사에 등록하지 않고 자신이 보험료를 착복하는 불법행위임.

4. 중국 보험시장의 규모 분석

가. 절대시장규모 분석

보험업무가 회복된 이후, 중국의 보험산업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으나 전체 보험시장은 여전히 작은 규모이다. 절대시장규모측면에서 2000년 중국의 전체 보험료수입은 세계 보험시장에서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비생명보험과 생명보험이 각각 15위와 18위 수준이다. 또한 세계시장에 대한 점유율은 0.79%이며, 이 중 비생명보험 및 생명보험이 각각 0.78%, 0.79%로 선진국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II-8 참조).

〈표 II-8〉 중국과 주요국과의 보험료수입 비교(2000년)

	전 체			비생명보험			생명보험		
	보험료 수입 (백만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	순 위	보험료 수입 (백만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	순 위	보험료 수입 (백만 달러)	세계시장 점유율 (%)	순 위
미 국	865,327	35.41	1	422,954	48.85	1	442,373	29.08	1
일 본	504,005	20.62	2	102,521	11.11	2	401,484	26.39	2
영 국	236,960	9.7	3	57,218	6.2	4	179,742	11.82	3
독 일	123,722	5.06	4	67,465	7.31	3	56,257	3.7	5
프 랑 스	121,910	4.99	5	37,148	4.03	5	84,761	5.57	4
이탈리아	63,062	2.58	6	26,383	2.86	6	36,679	2.41	7
한 국	58,348	2.39	7	14,112	1.53	10	44,236	2.91	6
캐 나 다	46,587	1.91	8	23,330	2.23	7	23,257	1.53	8
스 페 인	37,617	1.54	9	15,712	1.7	8	21,905	1.44	10
네덜란드	36,450	1.49	10	14,854	1.61	9	21,596	1.42	11
대 만	22,790	0.93	13	7,075	0.77	16	15,715	1.03	14
중 국	19,278	0.79	16	7,228	0.78	15	12,049	0.79	18
인 도	9,933	0.41	23	2,338	0.25	29	7,595	0.5	20

자료: 『중국보험』, 2002년 1期.

나. 보험밀도 분석

보험밀도는 1인당 평균 보험료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한 국가 보험산업의 발전정도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즉 1인당 평균 보험료수입이 높을수록 해당국가의 보험산업은 상대적으로 발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중국의 1인당 평균 보험료는 15.2달러로 세계 73위 수준이며, 이 중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이 각각 5.7달러, 9.5달러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세계 평균 보험밀도는 385달러이고,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보험밀도는 2,000달러를 넘고 있다. <표 II-9>는 중국과 세계 여러 국가간의 보험밀도를 비교하고 있다.

보험밀도 분석은 다시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기업, 사업단위, 기관 및 각종 조직이 가입하는 단체보험(또는 법인보험)이다. 단체보험의 보험료수입 크기는 해당국가의 경제발전정도와 경제체제, 정부의 보험료 책정, 비용의 계산 및 세수정책 등과 연관되는데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이 사회의 경제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기업은 국가에 이윤을 납부하고 정부는 기업의 위험을 부담하여 보험업의 경영범위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밀도가 엔겔지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엔겔지수가 작을수록 보험료 지불능력이 강화되고 보험료 지출 가능성도 확대된다.

현재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상황을 볼 때 단체보험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주택화재, 가정재산, 개인자동차, 개인생명 등에 관련된 개인보험은 아직 발전 초기 단계에 있다.

개인보험은 경제발전상황과 국가의 전통적 경제모델, 경제체제, 사회복지제도, 주민들의 수입수준과 연관된다. 과거 낮은 소득의 대부분을 생필품 구입에 사용하고, 국가가 분배한 주택에서 생활하던 상황에서 개인보험에 대한 수요는 클 수가 없었다. 그러나 경제체제 개혁이 시작되고 시장경

제가 발전하면서 개인보험은 급속히 발전하게 되었다. 한편 현재 개인보험의 발전은 지역간 격차가 심하게 나타나 개인보험의 주요 시장이 동부지역 및 중점 대도시에 한정되어 있지만, 미래시장인 농촌지역의 개인보험시장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이는 향후 중국의 보험밀도를 대폭 증가시킬 것이다.

〈표 II-9〉 중국과 주요국과의 보험밀도 비교(2000년)

국 가	순위	보험밀도	손해보험밀도	생명보험밀도
스 위 스	1	4,642.7	1,728.7	2,9140.0
일 본	2	3,908.9	805.5	3,103.4
영 국	3	3,244.3	741.5	2,502.8
미 국	4	2,921.1	1,474.4	1,446.8
아일랜드	5	2,454.7	642.7	18,120.0
네덜란드	6	2,405.7	1,009.2	1,396.5
폴 란 드	7	2,212.6	464.4	1,784.1
프 랑 스	8	2,080.9	688.6	1,392.3
텐 마 크	9	2,071.3	789.1	1,282.2
호 주	10	2,037.4	703.8	1,333.6
한 국	22	1,022.8	262.3	760.5
대 만	24	909.8	273.7	636.1
중 국	73	13.3	5.0	8.3
인 도	79	8.5	2.4	6.2

자료: 『중국보험』, 2002년 1期.

다. 보험심도 분석

보험심도는 보험료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이는 보험산업의 발전을 보여주는 또다른 중요한 지표로 비중이 클수록 해당국가 보험산업이 발전하였음을 나타낸다.

<표 II-10>은 중국과 세계 주요국의 보험심도를 비교한다. 보험심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이며, 한국도 13.05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보험종류별로는 손해보험의 경우 스위스와 미국의 보험심도가 높고, 생명보험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영국이 높다. 중국의 보험심도는 1.79%(이 중 손해 및 생명보험이 각각 0.67%, 1.12%)로 세계 61위에 머물렀다. 중국의 보험심도는 인구가 중국만큼 많고, 경제수준은 중국보다 떨어지는 인도에 비해서도 낮다.

(표 II-10) 중국과 주요국과의 보험심도 비교(2000년)

국 가	순위	보험심도	손보심도	생보심도
남아프리카	1	16.86	2.83	14.04
영국	2	15.78	3.07	12.71
한국	3	13.05	3.16	9.89
스위스	4	12.42	4.70	7.72
일본	5	10.92	2.22	8.70
아일랜드	7	10.14	2.64	7.50
네덜란드	8	9.87	4.02	5.85
호주	9	9.41	3.37	6.04
프랑스	10	9.40	2.81	6.59
미국	12	8.76	4.28	4.48
대만	15	7.39	2.29	5.10
중국	61	1.79	0.67	1.12
인도	52	2.32	0.55	1.77

자료: 『중국보험』, 2002년 1기.

라. 중국 보험시장의 잠재력

보험수요는 실질보험수요, 잠재보험수요, 예정보험수요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²⁾ 보험심도측면에서 일반적으로 중등 선진국의 보험료수입이

12) 잠재보험수요는 소비자가 지불능력이 있으나, 강한 구매동기가 없는 수요이고, 예정보험수요는 일정기간내 지불능력을 가질 수 있는 수요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인데, 이 기준으로 중국 보험시장의 잠재력을 추산하면 다음과 같다.

2001년 중국의 GDP 총액이 9조 6,000억 위안이므로 이것의 4%에 해당하는 보험료수입은 3,840억 위안이지만, 실제 보험료수입은 2,100억 위안에 불과하여 약 1,740억 위안 규모의 잠재시장이 존재한다.

만일 보험료수입을 현재 민간 저축총액 8조 위안의 4%로 계산하면 3,200억 위안 이상이며, 이는 2001년 보험료수입과 약 1,200억 위안의 차이가 있다. 물론 사회지불능력이 보험수요로 전환된다는 가정은 주민들의 소비구조와 소비자행동을 고려하여야 하지만 경제체제 개혁의 심화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의 수립, 보험에 대한 제도 정도에 따라 중국의 잠재 보험수요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이다.

경제성장의 지속에 따른 도시 및 농촌 주민의 수입증가와 소비구조의 변화(엔젤지수 하락), 국유기업의 개혁 및 시장경제체제의 가속은 향후 기업으로 하여금 각종 위험에 대하여 국가가 아닌 보험에 의지토록 할 것이며, 국가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민간 및 개체경제와 농촌 노동력은 자체적인 발전과 더불어 상업보험의 중요성을 점차 인식해나갈 것이다. 또한 인구의 노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생명보험, 특히 연금 및 양로보험의 수요가 급증하게 될 것이다.

1980~2001년간 중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9.3%였다. 최근 들어 성장세가 다소 완만하기는 하지만 여전히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고, 또한 도시 주민의 1인당 연평균 수입도 5~6%씩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의 노령화 추세도 보험산업 발전의 양적 배경이 된다. 특히 중국이 현재 추진 중인 경제체제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가속은 향후 중국의 보험수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국민경제의 성장과 보험산업의 발전

일반적으로 시장경제체제에서 경제규모가 클수록 보험의 수요와 공급도 커지며 아울러 인구의 증가속도는 경제발전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진행되는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는 보험밀도도 증가한다.

<표 II-11>은 중국의 연도별 GDP와 보험료수입 그리고 보험심도 및 보험밀도를 비교한다. 경제성장에 따라 보험료수입은 비례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심도는 1980년에서 2000년까지 0.1에서 2.2로 소폭 증가에 머물렀지만 보험밀도는 0.5에서 무려 168.8로 크게 늘어났다.

〈표 II-11〉 중국의 연도별 GDP와 보험료수입 추이

연도	GDP		보험료수입		보험심도	보험밀도
	금액 (억 위안)	성장률 (%)	금액 (억 위안)	성장률 (%)		
1980	4,517.8	-	4.6	-	0.1	0.5
1981	4,862.4	7.6	7.8	69.6	0.2	0.8
1982	5,294.7	8.9	10.3	32.1	0.2	1.0
1983	5,934.5	12.1	13.2	28.2	0.2	1.3
1984	7,171.0	20.8	20.0	51.5	0.3	2.0
1985	8,964.4	25.0	33.1	65.5	0.4	3.2
1986	10,202.2	13.8	45.8	38.4	0.5	4.3
1987	11,962.5	17.3	71.0	55.1	0.6	6.6
1988	14,928.3	25.2	109.5	54.1	0.7	10.1
1989	16,909.2	13.3	142.6	29.7	0.8	12.9
1990	18,547.9	9.7	178.5	34.4	1.0	15.8
1991	21,617.8	16.6	239.7	35.9	1.1	21.0
1992	26,638.1	23.2	378.0	18.8	1.4	32.7
1993	34,634.4	30.0	525.0	86.8	1.5	45.0
1994	46,759.4	35.0	630.0	26.5	1.4	52.6

<표 II-11> 계속

연도	GDP		보험료수입		보험심도	보험밀도
	금액 (억 위안)	성장률 (%)	금액 (억 위안)	성장률 (%)		
1995	58,478.1	25.1	683.0	18.9	1.2	56.4
1996	67,884.6	16.1	776.0	30.6	1.1	63.4
1997	74,462.6	9.7	1,080.0	40.0	1.4	87.4
1998	78,345.2	5.2	1,247.3	14.7	1.6	100.9
1999	81,910.9	4.6	1,393.2	10.2	1.7	110.6
2000	89,404.0	8.0	1,595.9	14.8	1.8	127.7
2001	95,933.0	7.3	2,109.4	32.2	2.2	168.8

자료: 孫建中(1999), 「對我國保險業發展的歷史分析和前景預測」, p. 12.;
『중국통계연감』, 각연호; 『중국보험』(2002년, 1期: p. 2).

2) 경제체제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경제체제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기업은 갈수록 자기책임 및 자주경영의 시장주체가 되어갔다. 기업이 직면하는 각종 시장위험은 늘어나지만, 동시에 국가와 기업간의 재산권 관계가 명확해지면서 기업은 국가를 대신해 자산을 보호해줄 보험을 필요로 하게 된다.

사회보장시스템의 개혁은 앞으로 수년내로 보험수요를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중국의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범위가 좁고 능력이 미흡하며 주로 국유경제 및 집체소유체경제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 및 개체경제, 농촌경제 등은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국가의 사회안전망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상업보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신의 의지로 보험을 선택하게 된다. 그런데 현재 중국의 사회보장제도는 그 밑바탕에서부터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가가 보장하는 국유경제의 규모가 급속히 줄어들고, 비국유경제가 확대되고

있으나, 이 비국유경제에서는 국가가 개인의 복지를 일부분만 보장하거나 또는 아예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유경제에서도 앞으로 개인, 기업, 국가가 공동으로 복지부담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사회보장제도가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사회보장제도의 변화는 특히 생명보험시장의 발전에 큰 공간을 제공한다.

3) 인구구조의 변화

한 나라의 인구는 그 나라의 보험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특히 생명보험시장은 더욱 그러하다. 중국은 인구 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보험잠재력을 지녔다. 보험산업이 발달한 유럽, 미국, 일본 등은 국가의 보험심도가 이미 8%에 도달, 국내시장은 이제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보험료수입 대비 보험사의 자본금 비율이 1980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본금 비율이 1985년에는 1.70이었으나 1996년에는 0.71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다. 1970년대 후반 시작된 ‘한자녀정책’으로 인구의 자연증가율이 크게 하락, 청년층 이하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또한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 인구분포가 자연스럽게 역삼각형 구조를 보이고 있다.¹³⁾ 가정 규모의 축소와 노령화의 가속은 현재 30~40세 성인이 직면하고 있는 이중적인 문제인바 향후 연금보험, 앙로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에 대한 수요를 늘리는 요인이 될 것이다.

시장경제 발전에 따라 경제주체의 직업구조가 다양화되고 있는 것도 중국 보험시장이 갖는 특징이다. 보험은 위험을 회피하는 전략의 하나이다.

13) 전문가들은 향후 노인인구가 연평균 3%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2015년까지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2억 명을 넘게 되어 전체 인구의 14% 정도에 이르게 되고,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비중은 2010년에 8.1%, 2020년 11.5%, 2050년 22.6%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李建立 2002 참조).

그런데 개인이 보험을 통해 자신의 위험을 처리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 사람이 소속된 직업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직업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보험에 가입하기 쉽고, 또한 도시지역에서 현대적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역시 농업 등 전통직업 종사자에 비해 보험이라는 위험방지전략을 보다 쉽게 선택하게 된다.

선진국의 경험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 특히 생명보험은 통상적으로 직업인구에서 비직업인구로, 상업부문 노동자에서 농업 노동자로 확대된다. 중국의 경우 보험이 직업인구로 확대되고는 있으나 학생, 실업자, 퇴직노동자 등 비직업 인구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예는 아직 많지 않다. 보험에 가입한 직업인구도 대부분이 2, 3차 산업에 종사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는 사람들이고 농업, 목축업 등 1차 산업 종사자의 보험 가입비율은 극히 미약하다.

한편 2, 3차 산업종사자들이 과거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종신직에서 점차 계약직으로 신분이 변하면서 위험노출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보험수요를 높이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4) 발전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요인이 중국 보험시장의 잠재력을 높이는 요인이라면 중국인의 생활 깊이 내재되어 있는 역사, 문화, 전통적 습관 등은 보험시장의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우선 중국은 지난 수천년간 소농(小農) 경제사회로 살아왔으며, 서방 공업사회에 비해 화폐보다는 실물을, 법률적인 계약보다는 개인의 정감을,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인 삶을 더욱 중요시하였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념은 소비자로서 하여금 보험이 갖는 화폐성, 계약성, 장기성 등의 특징에 거부감을 갖게 한다.

둘째, 중국의 전통문화는 부귀와 인명은 하늘이 결정한다는 통념과 위험에 처했을 때에는 가족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의식이 강하다. 이는 보험이 가지고 있는 위험의 예방과 이전, 손실을 모든 계약자가 분담하는 시스템과 상충된다.

셋째, 신중국 설립 이후 중국은 30여 년간 계획경제를 실시하여 ‘보장’에 대한 개념을 개인이 스스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정부)가 책임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지금까지 정부의 보장정도가 높지 않더라도 국유부문 종사자에 대해서는 그의 일평생을 책임지는 전방위적인 보장제도를 시행하여왔다. 개혁·개방 이후 비록 이론과 실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전통체제에서 축적된 관념이 쉽게 변하기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중국 금융기관에 대한 전통적인 신뢰도 문제이다. 중국인의 은행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높다. 많은 보험상품이 장기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소비자들은 보험사가 장기적으로 은행에 비해 안정적인가 하는 것에 회의를 갖고 있다. 2001년 말 기준으로 은행의 주민 저축 총액은 8조 위안을 초과하였지만, 보험료수입총액은 2,100억 위안에 불과하였다. 한편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라 증권회사를 비롯한 비은행 금융기구도 빠르게 성장할 것인바 이 역시 보험사의 경쟁상대가 될 것이다.¹⁴⁾

14) 孫祚祥 等(2000), 『中國保險業: 矛盾, 挑戰與對策』, p. 29.

Ⅲ.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 분석

1. 보험시장의 경쟁현황

가. 시장점유율의 변화

산업의 어느 한 부문에서 독점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첫째, 비교적 높은 시장집중도, 둘째, 시장선도기업의 시장점유율, 셋째, 진입장벽 등의 조건을 갖추어져야 한다. 시장집중도는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시장의 형태와 특성을 파악하는 주요 지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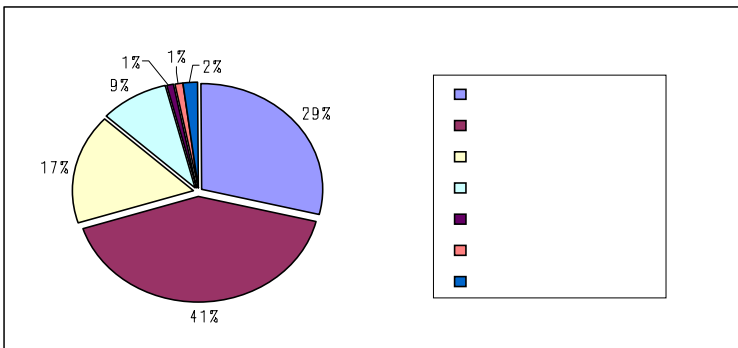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보험시장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으며 보험회사를 설립하기도 용이하다. 하지만 경쟁이 심하여 특정 회사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는 어려워 전체적으로 업체간 점유율 차이는 크지 않다.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1998년 상위 5개 손해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합계는 49%에 불과하였다. 이에 비해 계획경제체제를 겪었고, 보험산업의 발달이 늦었던 폴란드의 경우 상위 5대 손해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80%에 달하였다.

중국의 경우에도 폴란드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계획경제체제를 유지해온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보험회사들이 잇따라 설립되었지만, 지역제한정책으로 시장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 회사들의 지점 및 영업망의 확장도 제한을 받아 시장집중도는 떨어지지 않았고 경쟁시스템은 여전히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특히 손해보험의 경쟁은 여전히 비이성적인 가격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는바, 이러한 시장구조는 중국의 보험시장이 여전히 미성숙하고 경쟁시스템이 아직 형

성되지 않은 독점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림 III-1>은 2000년도 각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나타낸다. 중국인민보험공사(29%), 중국생명보험공사(41%), 平安보험주식회사(17%) 등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다. 외자보험사로는 미국의 AIG가 1%의 시장점유율을 기록하였다.

<그림 III-1> 중국내 각 보험사의 시장점유율 비교(2000년)



자료: 『중국보험연감』(2001)

한편 <표 III-1>, <표 III-2>은 중국과 조건이 비슷한 국가들과 시장집중도를 비교한 것이다. 중국은 비생명보험사와 생명보험사 모두 기업수 면에서는 아시아국가에 비해 매우 낮지만, 상위 5개사가 절대적인 시장집중도를 보이고 있어 다른 국가와 큰 차이가 난다. 비생명보험사의 경우 동남아 3개국은 시장점유율이 50% 이하이고, 생명보험사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가 80%를 밑돌고 있다.

중국 보험산업의 이러한 특징은 중국과 같은 체제전환국인 동유럽국가와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난다. 결국 보험시장이 특정업체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현상은 지역적 또는 체제적인 요인이라기보다는 중국 자체의 문제점, 즉 중국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독점구조 형성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표 III-1〉 중국과 아시아 주요국간의 시장집중도 비교(1998년)

주요국	비생보사 수	상위 5위권 비생보사 시장점유율(%)	생보사 수	상위 5위권 생보사 시장점유율(%)
중 국	12	99.80	8	99.20
일 본	-	53.60	-	60.40
인도네시아	103	42.00	61	71.90
말레이시아	53	27.90	18	70.70
필 리 핀	106	33.50	38	77.30
한 국	16	71.50	29	78.70
대 만	28	50.20	32	80.50

자료: Sigma No. 4, 2000.

〈표 III-2〉 중국과 동유럽국가의 시장집중도 비교(1998년)

국가	비생보사 (개)	상위 5위권 비생보사 시장점유율(%)	생보사 (개)	상위5위권생보사 시장점유율(%)
중 국	12	99.8	8	99.2
크로아티아	20	86	17	89
폴 란 드	31	80	24	98
러 시 아	1,393	24	-	52
슬로베니아	10	97	11	93
슬로바키아	20	88	17	88
체 크	29	86	19	91
헝 가 리	17	87	17	87

자료: Sigma No. 4, 2000.

〈표 III-3〉은 행정구역별 보험시장의 집중도를 나타낸다. 보험시장 집중도는 전국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비슷한 상황인데 각 省, 市마다 중국인 민보험과 중국생명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낙후된 지역이거나 행정계통이 복잡한 지역일수록 독점현상은 더욱 심하다.

보험시장의 집중도(손해보험 99.8%, 생명보험 99.2%)와 최대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중국인민보험 78.8%, 중국생명 71.9%)을 살펴볼 때 중국 보험 시장은 전형적인 독점시장이며, 낙후지역이거나 행정단위가 낮을수록 독점의 정도가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⁵⁾ 생명보험시장만 놓고 볼 때, 2000년 기준으로 중국생명(中國人壽)의 시장점유율은 65%이며 평안(平安), 태평양(太平洋)을 합한 3개 보험공사의 중국 생명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은 95.8%에 달한다. 특히 전국적으로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오로지 중국생명만이 생명보험을 취급하고 있다.

〈표 III-3〉 행정구역별 보험시장 집중도(2000년)

	중국인민보험공사의 시장점유율 (%)	중국생명보험공사의 시장점유율(%)
베 이 징	66.2	21.1(평안보험 40.0)
상 하 이	51.8	29.3(평안보험 43.4)
텐 진	74.3	43.5
산 둥	78.7	70.3
장 쑤	54.0	-
안 후 이	57.0	-
광 둥	77.3	-
산 시	65.0	77.6
쓰 환	86.9	75.8
헤이룽장	86.3	77.6

자료: 『중국보험연감』(2001)

<표 III-4>은 중국생명의 보험종류별 보험료수입구조를 나타낸다. 2000년 전체 보험료수입 651억 7천만 위안 중 개인생명보험이 81.1%를 차지하고 있다. 단체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67.2억 위안으로 10.3%를 차지하고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이 그 뒤를 잇고 있다.

15) 낙후지역과 행정단위가 낮을수록 중국생명의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여타 보험사가 관리의 효율성 차원에서 비용절감을 위해 진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지만, 이런 지역일수록 경제외적인 요인에 의해 보험을 선택하기 쉬운데 중국생명의 경우 다른 보험사에 비해서 정치적인 면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음.

〈표 III-4〉 중국생명의 보험종류별 수입구조(2000년)

(단위: 억 위안, %)

	단 체 보 험			개인 생명보험	전 체
	생명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보험료수입	47.6	67.2	8.7	528.2	651.7
비 중	7.3	10.3	1.3	81.1	100

자료: 『중국금융연감』(2001)

중국 보험시장의 시장점유율이 이처럼 소수 보험사에 의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인위적인 진입장벽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신규보험사에 대해서는 영업허가증 발급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며, 자본금 규정도 매우 까다롭게 하고 있다. 물론 중국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부실 보험사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에 기인하지만, 기존 보험사에 인위적인 독점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시장, 비효율적인 조치이며 보험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정부보호하의 독점시장에서 대형 보험회사는 시장개척과 자본이익 창출이라는 압력이 없으며, 경영자는 주로 상급기관에서 하달하는 연도별 임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국유보험사는 재산권이 불명확하여 자산 소유자의 자본이익 발생에 대한 평가와 비교를 할 수 있는 규정이 미흡하고, 주식제 보험사에 비해 효율성과 수익창출능력도 부족하였다.

나. 보험사의 양적 확대

보험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보험사가 설립되는 한편, 기존 보험사들도 지점 수를 확대시켜나갔다. 1988년 4월 平安보험공사가 광둥성 선전 특구에 설립되어 ‘중국인민보험공사’에 이어 두 번째 보험사가 되었다. 이

후 1991년에는 ‘太平洋보험공사’, 1994년 ‘天安보험공사’가 각각 상하이에 설립되었다.

1995년 보험법이 발효된 이후에는 보험사의 신설이 더욱 확대되었는데 ‘泰康생명’, ‘新華생명’, ‘華泰손보’, ‘華安손보’, ‘永安손보’ 등이 이 시기에 설립된 보험사다.

또한 1980년대부터 외국보험사들이 중국 대표처를 설립하기 시작하여 2000년 말 현재 19개 국가에서 총 112개 보험사가 대표처를 설립하였고, 11개국 18개 보험사가 중국에서 정식 영업하고 있다.¹⁶⁾

<표 III-5>는 최근 몇 년간 중국 보험회사의 증가와 초보적으로 형성된 보험시장 경쟁구도 및 보험기구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4년까지만 해도 중국의 보험사는 4개에 불과하였지만, 1995년 보험법이 제정된 후 1996년과 1998년 각각 7개, 12개의 보험사가 신설되었다. 또한 지사의 수도 1997년 전년 대비 5배 정도 늘어났다.

〈표 III-5〉 연도별 보험기구의 증가 추이

연도 \ 기구성격	보험사 수	지사 수	자회사 수	사무소 수
1993	4	99	2,648	2,393
1994	4	126	2,652	2,620
1995	6	131	2,813	2,897
1996	13	200	5,171	3,382
1997	13	1,095	4,078	2,031
1998	25	1,100	-	-
1999	27	1,100	-	-
2000	27	1,120	-	-

자료: 『중국보험연보』(1997); 『중국보험연감』(1998, 2001).

16) 업체 수는 18개이지만 복수지점을 포함하여 영업소는 모두 20개임.

2. 보험기구별 특징 분석

중국 보험시장의 경쟁주체로는 국유독자 보험공사와 현대기업제도를 도입한 보험주식회사가 있는데 이들은 설립목적이나 발전과정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가. 국유독자보험공사

1) 국유보험공사의 구조

국유보험공사는 국가로부터 투자 위임을 받은 기구나 혹은 부문이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보험유한책임공사’를 뜻한다. 계획경제시대 중국정부는 개인과 기업을 위해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수의 독자보험공사를 필요로 하였다. 이에 ‘중국인민보험공사’, ‘중국생명보험공사’, ‘중국재보험공사’, ‘新疆兵團보험공사’ 등 4개의 국유독자보험공사가 설립되었다.

국유독자보험공사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유일한 투자기구만이 주주인 유한책임공사이다. 이는 일반유한책임공사의 주주가 2~50명인 것과 다르다. 또한 이로 인해 주주총회를 열지 않으며, 조직기구는 이사회, 감사회 및 경리로 구성되어 있다. 보험공사의 최고 권한은 국가의 위임을 받은 투자기구에 있으며 공사의 합병, 분리, 해산, 증자 및 감자, 채권발행은 국가 투자기구 혹은 해당 정부부처가 결정한다.

이사회는 3~9인이며 국가가 파견 혹은 교체하고 근로자가 선출한 근로자 대표를 포함한다. 이사장은 1인으로 법인 대표이며 임기는 3년이다. 이사회는 국가가 부여한 주주총회의 부분직권을 행사하는 것 이외에 경영계획, 연도 재무예산방안 제정, 이윤분배 및 손실보전방안, 증자, 합병, 분리,

해산 등을 결정한다.

감사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규정에 의거, 금융감독부, 관련 전문가 및 근로자 대표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한 준비금 인출과 최저 변재능력을 감독하고 국유자산의 보존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경리는 이사회가 임명 혹은 해고하며 국가부문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 구성원이 경리를 겸임할 수 있다. 경리는 연도 경영계획 및 투자방안, 내부관리기구 설치방안, 기본 관리제도, 규범 제정 등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2) 국유보험공사의 특징과 문제점

국유보험공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른 보험사와 차별적이다. 첫째, 오랜 역사이다. 新疆兵團 보험공사를 제외한 3개의 국유독자보험사는 모두 1949년 설립된 前중국인민보험공사에서 갈라져 나왔다.¹⁷⁾ 둘째, 높은 시장점유율이다. 2000년도 보험시장을 보면 국유독자사의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셋째, 우수한 인재의 확보이다. 수십년간 중국에는 인민보험공사 하나의 보험사만 있었으며 당연히 보험 관련 인재는 대부분 초기 인민보험공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국유보험공사는 내재된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첫째, 보험공사는 국가의 출자로 설립되었으나 재산권의 소유가 불명확하다. 둘째, 주주의 관리·감독기능이 미흡하여 보험공사의 이윤, 자산의 점용과 보존, 임원 선출 등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 셋째, 정부의 지나친 행정 간섭이 존재한다. 법률적으로 국유독자보험공사는 기업인 동시에 하나의 행정단위인 것이다. 넷째, 경영 효율성이 매우 낮다. 국유보험사는 전국적으로 각 행

1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인민보험, 중국생명보험, 중국재보험 등 3개사임.

정구역마다 설치되어 있어 지점 운영비용이 매우 높다. 특히 수요가 거의 없는 서부의 낙후지역까지도 지점이 설치되어 경영에 부담을 주고 있다.

나. 보험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형태의 보험사는 보험산업 체제개혁의 산물이다. 주요 특징으로는 첫째, 앞에서 언급한 4개의 국유독자보험사를 제외한 9개 중국 국내보험사 모두 주식회사형태이다.

둘째, 명확한 재산권이다. 이 회사들은 모두 명확한 출자자가 있으며 경영관리자가 국유보험사의 CEO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어 수익창출에 대한 의지가 비교적 강하다.

셋째, 새로운 운영 메커니즘이다. 이 회사들은 모두 회사법, 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회사의 결정기구, 경영관리기구가 건전하고 직능의 분화가 명확하다.

넷째, 강한 시장경쟁의식이다. 이 회사들은 경영관리상 행정 간섭이 배제되어 신속적인 경영활동으로 시장의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하다.

그러나 이 주식회사형 보험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은 아직까지 30% 미만으로 시장을 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시장수요에 부합하는 지점 및 영업망 구축이 미흡하여 회사발전을 물론 보험서비스수준 향상에도 제한을 주고 있다.

<표 III-6>은 중국 국내보험사간의 서로 다른 위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국유독자보험공사의 절대적인 우세와 시장독점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자산규모 면에서 평안보험과 태평양보험이 주식형 보험회사 중 가장 규모가 크다. 평태, 태강, 신화 등은 규모 면에서 상위 2개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도 평안보험과 태평양보험은 국유보험사와 경쟁구도를 형성할 만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그 외의 보험사는

시장점유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중소형 보험사 가운데 신강 병단과 천안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사는 손해보험 또는 생명보험 중 어느 한쪽에만 특화되어 있다.

〈표 III-6〉 중국 보험사의 보험종류별 수입 현황(2000년)

(단위: 억 위안, %)

회 사 명	총 자 산	보험료 수 입	시 장 점유율	손 해 보 험		생 명 보 험	
				보험료 수 입	시 장 점유율	보험료 수 입	시 장 점유율
중국인민보험	489.54	468.24	29.08	468.24	77.13		
중 국 생 명	1597.69	651.65	40.47			651.65	64.97
太 平 洋 보 험	351.07	152.46	9.47	68.42	11.27	84.04	8.47
平 安 보 험	652.25	273.22	16.97	48.32	7.96	224.9	22.423
平泰손해보험	49.09	4.74	0.29	4.74	0.78		
泰 康 생 명	45.88	7.19	0.45			7.19	0.72
新 華 생 명	52.98	15.06	0.94			15.06	1.5
新疆兵團보험	9.45	3.83	0.24	3.12	0.51	0.71	0.07
天 安 보 험	7.71	2.7	0.17	2.63	0.43	0.07	0.007
大 衆 보 험	8.18	3.41	0.21	3.41	0.56		
永安손해보험	4.83	0.84	0.05	0.84	0.14		
華安손해보험	5	2.94	0.18	2.7	0.44		
외 국 보 험 사	54.66	23.8	1.48	4.67	0.78	19.13	1.84

자료: 裴光(2002), 『中國保險業競爭力研究』, p. 75.

3. 중국보험사와 해외보험사의 경쟁력 비교

가. 자산규모 및 이익창출능력 비교

어느 산업에서나 자산의 크기는 경쟁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인이지만, 보험산업의 경우 거의 모든 경쟁력이 자산의 크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산규모의 크기는 보험사의 배상능력뿐만 아니라 보험사의 신뢰성을 판단하는 척도로 이어져 영업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국정부는 보험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외자기업에 높은 자본금비율을 요구하여왔다. 그 결과 중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는 모두 세계적인 보험사이며, 일개 외국보험사의 자산규모가 중국보험사 전체를 합친 것의 수배, 수십 배에 이른다.

〈표 III-7〉 세계 10대 보험사와 중국보험사의 자산 비교(1998년)

(단위: 100만 달러, %)

순위	보험사 명	자산 (증가율)	소유자수익	순수익	자산수익률
1	AXA(프랑스)	449,556 (5)	16,634	52,683	11.72
2	Allianz Group(독일)	401,406 (45)	26,041	46,805	11.66
3	Nippon Life(일본)	374,801 (1)	8,501	51,128	13.64
4	Zenkyoren&Prefectural Ins.Federation(일본)	297,477 (3)	3,990	46,154	15.52
5	Dai-ichi Mutual Life (일본)	261,164 (4)	5,198	35,030	13.41
6	AIG(미국)	233,676 (17)	30,123	24,879	10.65
7	Metropolitan Life Insurance(미국)	215,346 (6)	14,367	11,503	5.34
8	SumitomoLife(일본)	212,200 (2)	4,411	29,320	13.82

<표 III-7> 계속

순위	보험사 명	자산(증가율)	소유자수익	순수익	자산수익률
9	Zurich Financial Service Group(스위스)	205,963 (11)	22,994	25,221	12.24
10	PrudentialGroup(영국)	196,536 (10)	5,443	18,782	9.56
	중국인민보험공사	5,806	334.90	103.3	1.78
	중국생명보험공사	11,675	622.70	54.7	0.47
	중국생명+중국인보	17,481	957.60	158	0.90

주: 증가율은 각국 화폐로 계산
 자료: 『保險諮詢』, 173期, 2000년 1월.

‘중국생명보험’과 ‘중국인민보험공사’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분야에서 중국 최대 규모로 자산총액이 각각 193억 2천만 달러(2000년 기준), 59억 2천만 달러이다. 그러나 이 두 회사의 자산을 합쳐도 자산순위 세계 25위 보험사의 16% 정도에 불과하다(표 III-7 참조). 게다가 이 두 보험사의 자산부채비율은 각각 94.7%, 94.2%에 달하고, 자산수익률도 각각 0.47%, 1.78% 정도이다. 이는 세계 20대 보험사 중 수익률이 가장 낮은 업체가 4%인 것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중국의 보험료수준이 세계 평균보다 높음을 감안하면, 중국보험사의 이익창출능력이 매우 떨어짐을 보여 준다.

나. 투자능력 비교

현대보험업은 그 기능이 이미 단순히 보장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에서 자금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단계로 발전하였지만 중국보험사는 아직 이러한 차원의 자금운용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보험금지급을 보험료수입 이외의 부분에서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보험사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핵심적인 지표이다.

중국보험사의 투자경험 및 관련인원의 부족, 그리고 금융안정성을 중시하는 중국정부의 규제는 보험투자의 대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국보험사는 중국보험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자사의 자본금, 공공적립금, 그리고 각 보험의 책임준비금을 국내에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은행예금, 국채, 금융채 및 보감원이 지정한 중앙급 국유기업채 등의 매매, 그리고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자금운영방식에 한해서만 보험자금을 운영할 수 있다.¹⁸⁾

최근 관련 법규의 개정으로 보험사는 투자총액의 15%를 간접투자방식을 통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 정도 규모의 주식투자로 전체 투자의 수익성을 올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주식시장이 지난 2000년 이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보험사의 자금운용에 부담이 된다.

결국 현실적으로는 은행금리 또는 국채금리의 변화는 중국보험사의 투자수익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런데 중국의 은행금리는 1996년 이래 계속 하락, 2001년 말 기준으로 1년 만기 예금금리는 2.25%에 불과하다. 금리가 떨어질 때마다 보험사는 보험료를 인상하고, 약정이율을 인하해야 하므로 시장개척은 그만큼 어려워진다.

이에 비해 외국보험사는 수백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주식, 대출 등 투자대상을 다변화하였고, 안정적인 자금관리능력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다. 물론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도 중국보험사와 마찬가지로 국내적으로는 투자제한을 받고 있으나, 관련 규정을 교묘히 회피하면서 해외금융시장에서 투자활동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베이징,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중산층 이상의 소비자들은 중국보험사에 비해 외국보험사를 선호하기도 한다.

18) 「보험공사 관리규정」, 2000년 1월 3일자.

〈표 III-8〉 중국과 주요국의 생명보험자금 투자구조 비교

(단위: %)

	미 국	영 국	일 본	스위스	중 국
유가증권	51.0	66.1	43.7	44.0	10.5
부 동 산	3.5	19.6	4.7	15.0	1.8
대 출	27.4	8.1	27.3	2.0	8.3
예 금	9.4	0.1	10.6	1.0	72.9
기 타	8.7	6.1	13.7	38.0	6.5

자료: 吳蘇平 主編(2001), 『加入WTO對中國壽險業的影響和對策』.

다. 국내보험사와 외국보험사의 경영구조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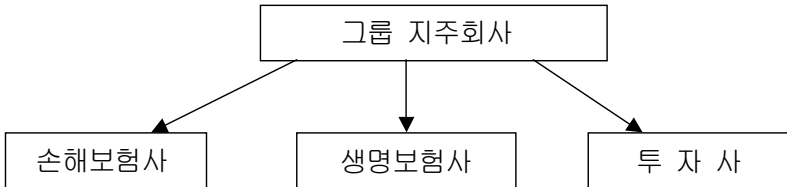
외국의 대형 보험사는 그룹지주회사나 전업지주회사의 모델을 채택하고 있다. 그룹지주회사 형태는 하나의 그룹(또는 지주회사)이 손해보험나 생명보험을 담당하는 자회사의 주식을 전부 또는 지배가능도까지 보유한 후, 그룹(지주회사)이 영업, 투자, 인사, 기획, 위험관리 등 중요한 결정을 통일적으로 관리하는 형식을 말한다.

그룹지주회사는 전액 출자 혹은 지배지분의 보유형식에 따라 그룹형과 지주회사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 중 미국의 AIG는 전자에 속하고, 독일의 Allianz, 프랑스의 AXA-UAP, 영국의 Royal & Sun 등은 후자에 속한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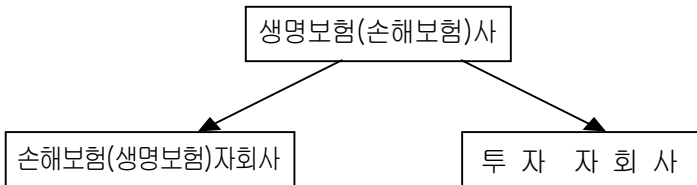
전업지주회사 모델은 서로 다른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모회사가 전액출자하거나 또는 지배지분을 보유한 형태로 손해보험 혹은 생명보험을 담당하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형식이다.

19) 馬明哲(1999), 『挑戰競爭-論中國民族保險業的改革和發展』.

〈그림 III-3〉 그룹지주회사의 조직도



〈그림 III-4〉 전업지주회사 모델



경쟁력 측면에서 그룹지주회사 모델은 다양한 상품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룹 내부적으로는 기술자원을 공유하고 투자기법을 향상시키는 데 유리하다. 또한 브랜드 가치를 앞세워 위험을 분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고, 전문투자회사를 설립하여 보험자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대부분의 외국보험사가 그룹지주회사 모델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 보험사가 상기와 같은 그룹형 경영체제를 가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개별경영상태이다.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3개 국유 보험사인 중국인민보험, 중국생명보험, 중국재보험공사가 모두 특정 보험 분야에만 특화되어 있으며, <표 III-6>에 나타나듯이 여타 보험사도 대부분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중 하나에 특화되어 있다.

4. 중국보험사의 경영능력 분석

현재 중국 보험경영주체의 업무능력, 투자능력, 자본 및 자산 현황, 이익창출능력, 경영혁신능력, 관리능력 등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자기보유보험능력

자기보유보험능력은 한 보험사가 자기자금으로 자신이 처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며, 보험사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자기보유보험료(retention)의 최대 금액으로 표시한다.²⁰⁾ 2000년 말 현재 중국 손해보험공사의 자기보유보험능력을 살펴보면 <표 III-9>와 같다.²¹⁾

보험 1건당 최대 자기보유보험능력을 갖고 있는 보험사는 인민보험과 평안보험이며, 최대 자기보유보험능력 역시 인민보험과 평안보험이 갖고 있다. 그러나 실제 자기보유보험료가 최대 자기보유보험능력을 초과하는 보험사는 인민보험 한 곳뿐이다. 그 결과 인민보험의 유효부하는 116.8%로 100%를 넘었지만, 태평양보험과 평안보험은 각각 72.2%, 38.7%에 머물렀다. 전체 손해보험사의 유효부하는 69%를 기록하였다.

한편 대표적인 손해보험사인 中國人民보험, 平安보험, 太平洋보험의 자산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보험료수입 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고, 또 ‘자산증가율’은 ‘소유자이익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험료수입 증가율이 자산증가율보다 높은 이유는 자산증식에 대한 보험료수입의 공헌도는 크지만 자본금과 투자수익의 역할이 미흡하고 자산증식의 경로가 단순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험료수입 증가율이 소유자이익 증가율보다 높은 이유

20) 자기보유란 일개 기업이 취하는 위험관리기법의 하나로 자신이 처한 위험, 즉 손실보전을 자신의 자금으로 하는 것을 의미함.

21) 裴光(2002), 『中國保險業競爭力研究』, p. 51.

는 부채비율이 높고 자기능력 이상으로 영업을 확대하여 향후 보험사의 보상능력이 우려됨을 뜻한다. 그리고 자산의 증가속도가 소유자 이익의 증가속도보다 높다는 것 역시 손실배상능력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결국 중국 보험사가 현재 외형적인 성장세는 매우 빠르지만, 내실경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잠재적 위험성은 높음을 의미한다.

〈표 III-9〉 중국 손해보험공사의 자기보유보험능력 현황

(단위: 억 위안)

회사명	자본금	자본잉여금	보험 1건당 최대 자기보유 보험능력	최대 자기보유 보험능력	실제 자기보유 보험료	유효부하 (%)
中國人民보험	77.0	1.76	7.9	315.0	368.0	116.8
太平洋보험	10.0	8.95	1.9	75.8	54.7	72.2
平安보험	22.2	18.52	4.1	162.9	63.0	38.7
華泰손해보험	13.3	0.82	1.4	56.6	4.9	8.6
天安보험	5.0	0.48	0.6	22.0	2.5	11.3
大衆보험	4.2	0.83	0.5	20.1	2.6	12.8
華安손해보험	3.0	0.05	0.3	12.4	2.5	20.3
永安손해보험	3.1	0.03	0.3	12.5	0.8	6.2
新疆兵團보험	1.5	2.56	0.4	16.4	3.7	22.6
합계	139.4	34.43	17.4	693.8	478.3	69.0

주: 1. 실제 자기보유보험료=보험료수입+재보험료수입-재보험료지출

2. 유효부하=실제 자기보유보험료/최대 자기보유보험능력

3. 자본잉여금(capital surplus)이란 자본잉여금은 자본거래, 즉 주식의 발행, 증자, 감자 등과 같이 주식회사에 투자된 자본 자체의 증감에 관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잉여금을 뜻함.

자료: 裴光(2002), 『中國保險業競爭力研究』, p. 5.

2) 투자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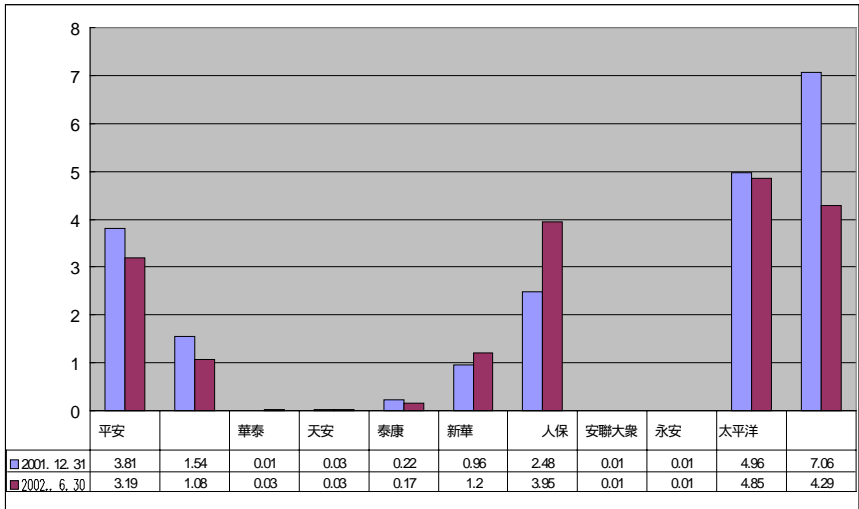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보험사들은 콜시장에 참여하거나 채권을 매입하는 등 투자경로를 다양화할 수 있었다. 특히 1999년에는 폐쇄형 뮤추얼펀드를 통한 주식투자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아직까지 전체 자금의 50% 이상이 은행예금에 집중되고 있는 등 투자의 다양성과 효율성은 높지 않다. 중국보험사들은 총자산의 15%까지 간접투자형식으로 주식투자를 할 수 있지만, 실제 투자비율은 여기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

<표 III-10>은 중국보험사의 펀드투자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보험사가 5%에도 못미치고, 심지어 거의 투자를 하지 않는 보험사도 상당수 있다. 이렇게 펀드투자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결국 투자비율이 15%로 제한되어 있어서라기보다는 보험사들이 주식시장의 안정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 금융기관의 뮤추얼펀드 운용능력에 대한 신뢰성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시장의 확대에 따라 보험료수입은 늘어나고 있으나, 이를 투자할 대상은 이전에 비해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계속해서 은행예금에 투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고객이 낸 보험료를 투자하여 그 수익을 바탕으로 보험금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 가입자가 낸 보험료수입으로 기존 고객의 보험금을 충당하는 실정이다.

중국보험사의 투자구조가 비효율적인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성이 높은 상품에 대한 투자가 많았다. 보험사의 부실자산을 살펴보면 감독기관이 신용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향진기업에 대한 투자가 절반에 이른다. 또한 부동산개발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은 경우도 많았다.

<그림 III-5> 중국보험사의 펀드투자 비중



자료: 『經濟觀察報』, 2002년 11월 4일자.

둘째, 자금의 운용과 투자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 금융기관이 전반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인데 과학적인 자금운용방법이나 위험관리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절반 이상의 자금을 이자상품에 투자하다보니 금리의 하락에 매우 민감하였다. 지난 1996년 이후 계속된 금리인하로 보험사의 수익률도 한때 10%에 달하였으나 2001년 말에는 3%대로 하락하였다.

3) 보험상품의 개발능력

경제발전에 따라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는 늘어났지만, 중국보험사의 상품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손해보험은 오랫동안 자동차보험, 제3자 책임보험(대인, 대물), 기업재산보험, 가정재산보험, 운송보험, 선박보험 등 유형재산에 대한 보험상품이 대부분이고 책임보험, 보증보험,

신용보험 등 무형의 이익형 상품개발은 매우 낙후되어 있다. 생명보험도 종합적인 생명보험상품이 대부분이고, 질병보험이나 노령화사회에 알맞은 ‘노후보장보험’ 등은 거의 개발되지 않았다.

신상품의 개발에서도 스위스나 영국과 같은 보험선진국에서는 매년 300여 개의 새로운 상품이 출시되어 전체 상품에서 신상품의 비율이 23%에 달한다. 중국의 경우 개혁·개방 이후 연평균 신상품 비율은 16% 정도이다.²²⁾

신상품 개발에 있어서 중국보험사의 또다른 문제점은 시장을 주도하는 상품을 먼저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의 변화에 따라 피동적으로 환경에 맞는 상품을 출시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말 은행 금리가 단계적으로 하락한 다음 각 생명보험사가 금리보장형 상품을 개발한 경우이다.

22) 1980년 보험상품의 수는 30개였으며, 2001년 말 현재 600개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음.

IV. WTO 가입에 따른 중국 보험시장의 구조 변화

1. WTO 가입에 따른 합의사항

국제간 보험서비스는 GATT 협약에 따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자연인 이동(presence of natural persons) 등 네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중국정부는 국경간 공급에 대해서는 해운 및 항공 운송보험과 재보험, 대규모 상업보험과 재보험중개인 업무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해외소비는 보험중개인 업무로만 제한하고 있다. 그 외 상업적 주재와 시장진입방면에서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행규정을 갖고 있다.

가. 기업설립

WTO 가입 후 외국의 비생명보험사는 중국내 지사나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합자회사 설립시 지분보유는 51%까지 가능하다. 또한 WTO 가입 후 2년내로 독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기업설립에 대한 형식제한이 폐지된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WTO 가입 후 지분참여가 50% 이하인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WTO 합의내용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유로이 합작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 외국의 보험중개인은 가입 후 50%의 지분참여로 합작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3년내 지분참여율이 51%, 5년내 100% 독자 현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나. 지역제한

가입 즉시 외국생명보험사 및 비생명보험사는 상하이, 광저우, 다롄, 선전, 포산(佛山)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2년내 베이징, 청두, 충칭, 푸저우(福州), 쑤저우(蘇州), 닝보(寧波), 선양, 우한, 톈진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으며, 3년내에 중국 전 지역에 지점을 설치할 수 있다.

다. 업무범위

외국 비생명보험사는 가입 즉시 지역제한 없이 일괄보험증권(master policy)²³⁾ 및 대규모 위험에 대한 보험업무, 그리고 중국내 외자기업에 대한 재산보험과 관련된 책임 및 신용보험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2년내 국내외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비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외국생명보험사는 가입 즉시 국내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비단체) 생명보험 서비스를, 3년내에 건강보험, 단체보험 및 연금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 또한 가입 즉시 외국보험사(혹은 외국재보험사)는 지사, 합자 혹은 독자회사 형식으로 지역제한과 인·허가에 대한 수량제한 없이 생명보험 및 비생명보험에 대한 재보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라. 영업허가

가입 후 영업허가증 발급에 대해서는 경제성 필요조사와 수량제한을 하지 않는다. 외국보험기구 설립을 위한 자격조건으로는 첫째, WTO 회원국

23) 일괄보험증권이란 단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개별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가입된 피보험자 전원을 가입한 보험증권을 발행하는 증권을 뜻함.

으로 30년 이상의 영업경력을 보유하고, 둘째, 중국내 대표처가 2년 이상 존속하였으며, 셋째, 설립신청 전년도 총자산규모가 50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법정재보험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외 보험사가 ‘중국재보험공사’에 가입하는 20%의 법정재보험 가입비율을 WTO 가입 1년 후 15%로 인하하고, 2년과 3년 후에는 각각 10%, 5%로 인하하며, 4년 후에는 법정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손해보험분야에 있어서 외국보험사는 자동차 3자 책임보험, 공공운송차량과 업무용 차량의 기사 및 운송업자 책임보험 등은 취급할 수 없다.

외국보험사가 일괄보험증권의 브로커 업무를 할 경우에는 내국민대우를 적용한다. 외국 브로커의 영업범위도 외국보험사의 지역제한에 대한 개방 일정에 준하여 가입 후 상하이, 광저우, 다롄, 선전, 포산(佛山)을 개방하고, 2년 후에 10개 도시를 추가로 개방하며 3년 후에 지역제한을 철폐한다. 보험중개인사의 신청자격은 앞서 기술한 30년 영업경력 및 중국내 2년간 대표처 존속조항 외에 자산규모가 가입시 5억 달러 이상, 1년, 2년, 4년 후에 각각 4억 달러, 3억 달러, 2억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합의내용을 정리하면 WTO 가입 후 중국에서 영업하는 외국보험사에 대한 수량제한은 없지만 시장진입장벽은 비교적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보험사는 30년의 경력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5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야 한다. 이는 중국보험사의 설립요건이 지역형 보험사의 경우 자본금이 2억 위안(2,400만 달러), 전국형 보험사라 해도 5억 위안(6,000만 달러)인 것에 비교해 상당한 차이이다.

2. WTO 가입이 보험시장에 미치는 영향

가. 보험시장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

개혁·개방 후 중국의 보험산업이 20여 년간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일반 국민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편이다. 최근 실시된 중국 국무원 발전연구센터(DRC)의 조사에 따르면 보험을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있는 응답자는 6%에 불과했고, 잘 알지 못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36%에 달하였다.²⁴⁾ 또한 보험을 채테크의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9%로 낮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중국인의 보험에 대한 인식이 아직 부족하고, 또한 보험사와 정부의 홍보활동이 부족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외국보험사는 중국시장에서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홍보활동은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여 보험시장 전체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며, 이는 분명히 중국보험사에도 상당한 외부경제효과를 제공할 것이다.

상하이시의 사례가 이에 대한 좋은 예이다. 현재 상하이에는 11개의 외국보험사를 비롯하여 모두 22개의 보험사가 있다. 1992년 상하이에 가장 먼저 진출한 미국의 AIA는 중국 최초로 보험모집인제도를 도입하였고, 많은 영업사원이 시민들과의 1대1 마케팅활동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였다.

이러한 근접서비스는 고객의 호평을 받게 되었고, AIA의 보험료수입은 상하이 진출 3년 만에 4배나 증가하였다. 이후 다른 보험사들도 AIA의 보험모집인제도를 채용하였고 그 결과 상하이시 생명보험시장의 규모는 빠르

24) DRC가 2001년 10월부터 2002년 8월까지 전국 50대 대도시를 대상으로 행한 보험수요에 관한 설문조사결과임.

게 성장할 수 있었다. 1992년 18억 위안이었던 생명보험 보험료수입은 2000년 92억 위안으로 늘어났고, 1일당 보험료규모도 969위안으로 전국 평균치의 7배를 기록하였다. 다시 말해 격렬한 시장경쟁으로 중국보험사가 퇴출위기를 맞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재시장이 개발되어 보험시장의 공간이 확대된 것이다.²⁵⁾

나. 외국보험사의 신규 진입에 따른 경쟁 증대

전반적으로 외국보험사는 자금력, 상품개발기법, 업무전개방식, 관리수준 등에서 모두 중국보험사를 압도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가 외국보험사에 엄격한 진입규제를 하고는 있으나, 현재 중국에서 영업 중인 20개의 외국보험사와 이미 대표부를 설치한 200여 개의 외국보험사는 이미 이러한 조건을 훨씬 초과한다. 따라서 기존의 중국 국유보험사에 비해 규모와 경영효율성 면에서 월등히 앞선 외국보험사가 보험시장에 진입할 경우 보험시장을 수성하려는 국내업체와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외국보험사는 중국의 규정을 지키더라도 대량의 자금을 모집하고 또한 이를 수익성 높은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보험법 제102조 규정에 의거, 각종 보험에 대한 재보험 가입은 중국내 보험공사에 가입해야 하는데 여기서 법정 재보험 가입비율 20%와 보험감독기관이 요구하는 자기보유 보험료(retention) 30%를 제외하더라도 외국보험사는 여전히 50%에 해당하는 자금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현재 중국시장에서의 투자회수율과 보험감독에 대한 여건을 비추어볼 때 향후 외국보험사가 중국에서 모집한 자금을 해외시장에 투자한 후 투자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 이는 중국의 국유보

25) 「外國保險公司帶來甚末?」, 『人民日報』, 2001년 11월 23일자.

험사가 지금까지 자금의 일부를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정부의 건설사업에 투자해온 것과 엄청난 차이이다.²⁶⁾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 비해 재보험시장은 그 충격이 더욱 클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재보험시장은 다른 보험시장에 비해 발전속도가 느린 편이다. 재보험의 발전은 보험자의 경영을 안정시키고 원수보험자(元受保險者)의 시장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며,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데에도 좋은 경로가 된다. 그런데 외국보험사가 재보험시장을 장악하게 되면 국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는 불가피하게 외국보험사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

현재 중국의 유일한 재보험사인 중국재보험공사는 등록자본금 30억 위안, 총자산 120억 위안(1999년 기준)으로 보험료수입 면에서는 세계 14위이지만, 수익성은 매우 저조하다. 또한 법정 재보험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중국재보험공사로 집중되고 있지만, 그 외의 재보험업무는 95% 이상이 해외 재보험사로 넘어가는 실정이다.

다. 구조조정을 통한 중국보험사의 경쟁력 제고

중국시장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들은 중국 금융기관과 협력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중 일부는 중국보험사를 파트너로 선택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협력관계에 있는 중국보험사는 외국보험사로부터 과학적인 금융자산 운용 개념과 기술을 습득하고, 선진적인 경영전략과 위험관리능력을 학습할 수 있게 된다. 외국보험사와 파트너관계를 맺은 비보험기업도 다소의 학습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비슷한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기술이전

26) 물론 금후로는 국유보험사의 이러한 '강요된' 투자패턴도 바뀌게 될 것임.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반적인 중국보험사로 확산(기술확산효과)되어 중국보험업계의 전반적인 효율성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²⁷⁾

라. 인재에 대한 수요 증대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은 보험 관련 인적자원에 대한 수요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외국보험사는 중국시장의 특수성에 능통한 숙련된 보험 인력을 원할 것인바 각 보험사간 경력사원에 대한 치열할 스카우트 경쟁이 예상된다. 외국보험사는 중국계 경쟁사에 비해 보수, 복지, 그리고 유연한 인사제도 등을 내세워 기존의 인력을 스카우트할 것이며, 이에 따라 현재 인재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보험사들의 인재 유출은 어느 정도 불가피할 것이다.²⁸⁾

마. 중국보험사의 해외진출 촉진

대외개방은 국내시장을 보호하던 진입장벽을 제거하는 수세적인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다. 외국보험사와의 경쟁과정에서 체질을 개선한 국내보험사들이 자신들이 경쟁력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계기도 된다. 또한 선진기술을 중국보험사가 직접 습득하여 기업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27) 합작보험사에 국내보험사로 기술 및 노하우가 확산되는 경로는 고급인력의 이동으로 나타남.

28) 그런데 개방이 인적자원의 이동에 미치는 효과는 반대방향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은행이나 증권사의 개방경험을 보면 중국 금융기관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히려 해외의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현상도 나타났음.

3. 보험관리감독부문에 미치는 영향

가. 현 보험관리감독기능의 문제점

현재 중국의 보험관리감독기능은 보험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인민은행, 중국증권감독위원회, 보험업협회 등이 맡고 있다. 또한 법률 측면에서는 보험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규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보험가입자의 합법적 권익, 공정경쟁 및 시장질서 유지, 보험체계의 안전 등의 측면에서 현행 관리감독체계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

첫째, 관리감독 이념에 대한 혁신이 요구되고 질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과거 사회주의시스템의 영향으로 보험감독에 있어서 계획적이고 행정적인 성향이 아직도 강하게 존재한다. 시장 자체의 자정능력이 약하여 시장에 맡기면 각종 위법현상이 만연하고, 일방적으로 행정감독수단을 동원하면 시장이 침체해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들어 보험산업의 시장화와 법제화가 진행됨에 따라 감독부문도 점차 시장경제에 적응하여 지령에만 의존하는 현상이 개선되고 있으나, 구시대적인 관리이념과 수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둘째, 감독인력의 능력을 제고해야 한다. 현재의 감독인력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았다고는 하나 보험산업이나 보험감독에 대해서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는 못하였다. 특히 국제보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감독 인재를 유치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고용과 보수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해야 한다.

셋째, 관리감독에 대한 법규의 개선이 필요하다. 보험과 관련된 많은 법률과 법규가 매년 재·개정되고는 있지만, 母法인 보험법은 제정 6년째 그대로이다. 따라서 보험법 자체를 국제규범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²⁹⁾

29) 孟龍(2002), 「加入WTO中國的保險監管面臨考驗」.

그리고 보험 관련 전문기구와 전문서비스를 조율하는 행정법규가 미흡하여 보험경영자나 보험감독자가 근거로 삼기 다소 모호하며 아울러 보험 감독기구과 소속된 직원들의 행위에 대한 규율 및 제도도 건전하지 못하다.

나. 중국 보험감독의 발전방향

1) 감독수단의 시장화

과거의 감독수단이 행정적, 지령적 성격이었다면 WTO체제하의 감독수단은 시장경제시스템에 상응하는 공개, 공평, 공정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WTO시스템에 따라 관련 규범체계와 국제보험감독 관례를 학습하고, 국제화된 감독제도와 보조를 맞춰야 한다. 그리고 보험업계 스스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자율관리를 강화하여 보험감독위원회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감독방식의 법제화

시장을 통한 감독방식은 완성된 법률의 기초 위에 구축되어야 한다. WTO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시장진입, 내국민대우 등 종래의 차별적인 내용을 수정한 것을 근거로 제정되어야 한다.

금후 보험감독위원회는 「보험법」과 「보험공사관리규정」을 현 보험시장에 맞게 수정할 것이다. 또한 「보험위법행위시작단계규정」, 「재보험관리방법」, 「보험공사정보공개관리방법」, 「자동차책임 강제보험조례」 등의 제정을 준비하고 있다.

3) 여타 금융감독기관과의 협력

보험감독위원회는 은행 및 증권부문을 담당하는 감독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금융산업의 발전추세와 동향을 주시하고, 은행, 증권, 보험 기구 사이에서 발생할 수도 있는 금융위기를 방지하여 공동으로 중국의 금융체계를 안정시켜야 한다. 또한 공상(工商), 세무, 회계 등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와의 정보교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험감독의 투명성이 제고되면 감독인, 보험경영인 및 일반 보험가입자는 자신의 역할을 숙지하고 명확한 신분으로 정해진 범위내에서 활동할 수 있다. 또한 사안에 대한 조사처리 상황을 즉시 공개하여 보험자 스스로 행위를 조절, 보험시장의 안정된 운영을 보장할 수 있고 아울러 감독부문은 피드백되는 시장정보를 근거로 관리감독에 따른 문제점을 즉각 개선할 수 있다.

4) 감독의 국제화

WTO 가입 후 외국보험사가 중국의 증권시장에 진출하고 중국보험사는 해외에 진출하여 하나의 보험사가 서로 다른 국가에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감독기관도 국제화될 수밖에 없다. 거래장소의 확대, 상품개발, 새로운 보험기법의 등장 등은 감독의 범위를 모호하게 하여 한 국가에서의 감독을 어렵게 하며, 국제간 공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보험감독 당국과의 협력과 정보교류를 강화하고, 다국적 보험기구의 관리감독에 대해 협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국제보험감독협회’의 회원으로 ‘중국보험감독위원회’는 국제보험감독 협회와의 각종 협력, 교류활동에 참여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보험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V. WTO 가입과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1.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현황과 특징

가. 외국보험사의 진출과정

보험시장의 대외개방은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대외개방의 중요한 부분이다. 중국은 우선 시범지역의 개방을 통하여 순서에 따라 개방의 정도와 지역을 점차로 확대해왔으며 아울러 외국보험사도 이에 상응하여 중국 진출을 시작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이 3단계로 이루어졌다.

1) 1단계: 1980~92년

중국은 1980년부터 외국보험사의 대표처 설립을 허가하였다. 1980년 미국의 AIG와 일본의 도쿄해상화재가 베이징에 연락처를 설치한 것을 필두로 각국의 대형 보험사들은 경쟁적으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대도시 에 연락처나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1992년 말까지 22개 외국보험사가 중국에 28개의 대표처를 설립한 후 이들은 적극적으로 중국보험사와 정부기관, 그리고 각계의 사회조직을 접촉하여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각종 공익활동의 참여를 통하여 회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아울러 시장진입을 위한 영업허가증 발급을 기대하였다. 예를 들어 자산규모가 약 9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Aetna社는 미 행정부와 국회 인맥을 통해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하였으며, 8,500만 달러 규모의 ‘安泰中國基金’을 설립하여 중국 민간기업의 기술투자를 지원하였다.

2) 2단계: 1992~98년

1992~98년 사이 중국 보험업계는 '中保集團'을 중심으로 안정적인 독점 체제를 구축하였고, 시범적인 대외개방을 실시하여 중국정부가 제시한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보험사의 중국내 영업기구 설치를 허가하였다.

1992년 국무원은 상하이, 광저우지역을 시장개방을 대비한 시범도시로 지정하였다. 1992년 9월에는 인민은행이 「상하이시 외자보험사에 대한 잠정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AIA의 상하이지사 설립을 승인하였다.³⁰⁾ 또한 1993년 5월 보험중개인사로는 처음으로 세계 최대의 위험관리컨설팅 및 보험중개전문회사인 영국의 SEDWICK이 베이징에서 영업을 시작하였고, 1994년 7월에는 일본 최대의 비생명보험사인 일본 도쿄해상화재가 외국업체로는 두 번째로 상하이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1995년 초 국무원은 시범 개방도시를 광저우로 확대하고, 아울러 AIA와 AIU의 광저우지사 설립을 승인하였다.³¹⁾ 1996년에는 첫 번째 중외합자보험사(캐나다의 Manulife사와 중국석유화학총공사)가 상하이에 설립되었다. 1996년 11월에는 외국보험사로는 네 번째이고 유럽회사로서는 최초로 스위스의 Winterhur社가 상하이에 지사를 설립하였다. 1997년에는 프랑스 AXA社, 독일 Allianz社 및 미국 Aetna社 등 3개사와 중국보험사와의 합자보험사가 설립되었다. 1998년에는 영국의 Royal & Sun Alliance社와 호주 Colonial社가 잇따라 진출하였다. 또한 캐나다의 Manulife 등 일부 보험사는 청두, 충칭 등지에 대표처를 설립하여 서부지역으로의 진출을 시도하였다.

30) AIA(American Insurance Association: 중국명 友邦)는 생명보험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보험사로 미국의 AIG(American International Group)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임.

31) AIU(American International Underwriters)는 AIA와 마찬가지로 AIG의 자회사로 종합보험(특히 손해보험)을 취급함.

3) 3단계: 1999년~현재

1999년 4월부터 현재까지 중국은 시장개방 폭을 더욱 확대하였다. 1999년 4월 총자산규모 200억 달러, 연간 매출액 57억 달러로 세계 15위 규모인 미국의 Chubb社가 진출하였다. 또한 영국의 Prudential社(영국 최대의 생명보험사, 전 세계 관리 자산총액 2,400억 달러, 해외 매출이 전체의 50%를 차지), 미국 John Hancock社(1997년 기준 자산총액 1,267억 달러, 국제업무는 동남아에 집중), 캐나다 Sunlife社(세계 50대 보험사, 자산총액 571억 달러) 등 3개의 생명보험사와 중국보험사와의 합자생명보험회사 설립을 허가하였다.

또한 1999년 10월에 중국의 泰康保險은 보험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최초로 외자의 지분유치방식에 의한 증자를 통해 보유주식을 6억 주에서 10억 주로 늘렸다.

상하이, 광저우 지역의 성공적인 시장개방을 통해 중국은 시범지역을 선전, 충칭, 다롄, 톈진 등지로 확대하였고, 시장진입, 지역제한, 영업범위 등 WTO 가입 후 시장개방에 대한 합의사항이 점차 이행함에 따라 향후 외국보험사의 중국시장 진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현황 분석

1992년에 AIA가 최초로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후 2001년 말 현재 중국에 설립된 외국보험사 및 중외합자보험사는 미국, 프랑스, 스위스, 일본, 네덜란드, 홍콩 등의 10여 개사가 설립한 27개이며, 이밖에 16개국 100여 개 보험사가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지에 약 200개의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그런데 이 외국보험사들의 수적인 증가는 제한적이며 영업지역도 상하이, 광저우, 선전, 하이커우 등 몇 개 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영업범위도 외자기업의 재산 및 책임보험, 그리고 생명보험서비스 제공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히 재보험업무는 최근 10여년간 시장진입이 금지되어 있다. 현재 생명보험과 화재보험분야에서 외국계 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은 2%(2000년 기준)에도 못미치며 보험료수입 면에서도 그 비중이 1.6%에 불과한데 이는 중국정부의 지역적, 영업범위적 규제가 그만큼 강하였기 때문이다.

〈표 V-1〉 2000년 외국보험회사 업무실적

(단위: 백만 위안)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 계
외국보험사 보험료수입	1,994.61	516.86	2,511.47
보험료 총액	100,301.50	60,774.78	161,076.27
비중	1.99%	0.85%	1.56%

자료: 『중국보험연감』(2001)

외국보험사가 중국기업과 함께 설립한 주요 합작보험사를 살펴보면, △金盛생명(中國五礦集團과 프랑스 AXA), △太平洋-Aetna생명, △Allianz-大衆생명, △中宏생명(중국의 대외경제무역신탁투자공사와 캐나다의 Manulife), △中保-Colonial생명, △John Hancock-天安생명, △信誠생명(영국의 Prudential과 중국의 국제신탁투자공사), △中意생명(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와 이탈리아의 Generali와 합자), △光大-Sunlife생명(중국 光大集團과의 합자) 등이다. 그 외 현재 프랑스의 CNP, 영국의 CGU, 네덜란드의 ING, AEGON, 미국의 Metropolitan, New York Life 등이 협상을 진행 중이거나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세계 500대 기업에 속하는 대형 보험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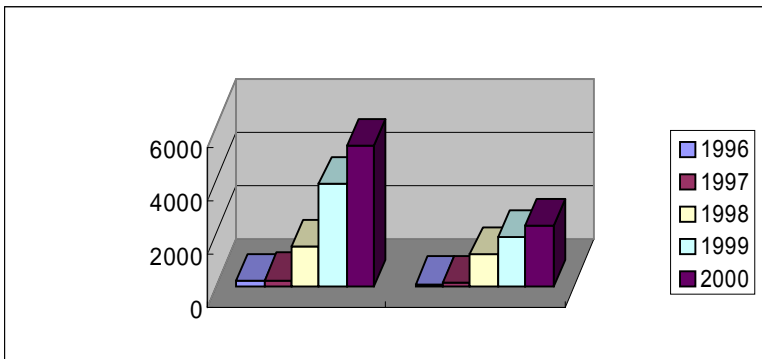
그런데 위의 합작보험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보험사의 중국측 파트너가 모두 보험업에 종사하는 것은 아니며, 금융기관이 아닌 곳도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생명이나 태평양보험과 같은 생명보험사 또는 大衆, 平安과 같은 손해보험사가 파트너인 경우도 있고, 中信, 光大와 같

은 금융기구 그리고 五礦集團, 대외경제무역신탁투자공사, 중국석유천연가스총공사 등 금융업과 무관한 대형 기업도 외국보험사의 파트너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비생명보험사, 특히 보험과 별 관련이 없는 기업도 합작파트너로 중요시 여기고 있음을 증명한다.

<표 V-1>에서 보듯이 합작보험사의 2000년도 보험료수입액은 약 20억 위안 정도인데 중국 전체 생명보험 수입액이 1,423억 위안임을 감안하면 매우 적은 규모이다. 심지어 어떤 합작보험사의 경우 연간 수입이 1,000만 위안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이는 중국 생명보험사의 1개 지점 수입에 불과한 금액인바 외국보험사가 비록 본사의 규모와 경영능력 면에서는 중국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현재 시장점유율은 중국정부의 영업지역 및 경영범위 제한으로 극히 미약함을 보여준다.

<그림 V-1> 외국보험회사 성장도

(단위: 백만 위안)



자료: 『중국금융연감』(1997~2001)

그러나 시장이 조기 개방된 상하이, 광저우지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는 이미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다. 상하이의 경우 외국보험사의 수가 이미 중국보험사를 초과하였고, 보험료수입도 많은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시 전체 보험료수입의 10%를 차지하였다(2000년 기준).

또한 선전에서는 홍콩의 '民安보험'은 손해보험시장의 15%를 점유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외국보험사가 주어진 제약, 즉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중국업체와 비교할 수 없는 자금운영과 위험관리의 효율성을 바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V-2〉 2000년도 외국보험사 재무 현황

(단위: 백만 위안)

회사	비교지표	보험료수입	자산총액	이윤	이윤/수입(%)	이윤/자산(%)
AIU(상하이)		130.9	216.7	19.0	0.14	0.09
AIU(광저우)		33.8	113.7	0.5	0.02	0.005
AIU(선전)		7.1	10,747.0	-93.0	-13.0	-0.01
일본도쿄해상		76.0	217.0	14.0	0.18	0.06
홍콩民安(海口)		5.1	19.9	-2.1	-0.42	-0.11
홍콩民安(선전)		146.2	212.3	25.6	0.18	0.12
Winterthur		91.1	191.1	0.8	0.01	0.004
Royal & Sun		26.8	111.9	-5.4	-0.20	-0.048

자료: 『중국보험연감』(2001)

한편 지금까지의 경험상으로는 외국보험사의 선진경영기법도 초기에는 시장에 큰 반향을 가져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보험사들이 이러한 기법을 차용하게 됨에 따라 나중에는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AIA는 보험모집인제도를 통해 초기에는 상하이시 전체 생명보험 보험계약 77만 건 중 무려 70만 건을 성사시켰지만, 얼마 후 중국보험사들도 이 제도를 도입하자 1996년에는 시장점유율이 13%대로 크게 하락한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외국보험사는 1999년 이후부터는 비교적 빠른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2. 보험시장 개방정책의 변화

가. WTO 가입 이전의 개방정책

1) 외국계 보험기구에 관한 법률

1992년 9월 11일에 발표된 「상하이시 외자보험기구 임시관리 지침」에 의하면 시장진출을 희망하는 외국보험사는 30년의 영업경력과 50억 달러 이상의 자산규모, 그리고 최소 2,000만 달러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갖추어야 한다. 외국보험사의 업무범위는 첫째, 외자기업에 대한 재산보험 및 관련 책임보험, 둘째, 중국인 및 중국내 외국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생명보험, 셋째, 위와 관련된 재보험업무, 그리고 승인을 거친 기타 서비스 등이다.

또한 보험료수입의 30%를 반드시 인민보험공사 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³²⁾ 배상금을 지급할 경우에도 인민은행이 지정한 손해사정회사를 통해서만 현장답사, 손해평가, 배상심사가 가능하다. 재보험을 가입할 경우에는 국내 재보험사를 우선시하도록 되어 있는데,³³⁾ 국내 재보험사가 접수를 거부하거나 해외보험사의 가입조건이 월등히 좋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재보험공사가 접수한 재보험의 일부를 타보험사에 다시 재보(再保)할 경우에도 국내보험사를 우선한다. 그리고 외국보험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외자기업에 적용하는 세제상의 우대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보험료수입금의 일부를 해외시장에서 운용할 수 있다.

2) 외국보험사의 대표처 운영에 관한 법률

보험시장 개방 초기 발표된 「외국보험사 대표처 임시관리 지침」의 규

32) 이는 중국보험사의 재보험 비율 20%에 비해 높은 수치임.

33) 「보험관리 임시규정」 제64조

정에 의해 중국내 대표처에 근무하는 자는 수익을 발생시키는 어떤 협의나 계약을 할 수 없으며 또한 기타 경영활동에도 종사할 수 없다.

3) 투자 및 지분참여에 관한 규정

외국계 기업은 1999년 발표된 「보험공사 투자 및 지분참여에 관한 임시 규정」에 따라 중국보험사에 지분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기업의 지분은 10% 이내로 제한되고, 전체 외자기업의 지분 합계도 25%를 넘지 못하며, 만약 25% 이상일 때는 외국보험사 관리규정에 의해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

나. WTO 가입 후 외국보험사의 진입에 관한 규정

중국은 2001년 11월, WTO에 정식으로 가입한 후 이듬해 2002년 2월 1일부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 관리조례」를 실시, 외국보험사의 자본금 혹은 운영자금, 진입장벽, 설립준비기간 등의 구체적인 규정을 재차 확인하였다.

1) 자본규정

합자 및 독자 보험공사의 등록 자본금은 최소 2억 위안 혹은 등가(等價)의 자유태환화폐로 한다. 외국보험사의 출자는 자유태환화폐로 하며 외국보험사의 본부는 현지법인에 대해 2억 위안 이상의 등가(等價)에 해당하는 자유태환화폐로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2) 설립조건

외국보험사 설립 신청시에는 ① 보험영업경력 30년 이상, ② 중국내 대

표처 2년 이상 유지, ③ 설립신청 전년도 총자산규모 50억 달러 이상, ④ 모국에 안정된 보험관리감독제도가 있고, 아울러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보험사가 이미 모국 주관 당국의 감독을 거칠 것, ⑤ 모국의 배상능력 기준에 부합, ⑥ 신청에 대한 모국 주관 당국의 동의, ⑦ 기타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요구규정 충족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3) 업무범위

외국보험사는 중국보험감독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첫째, 재산손해보험, 책임보험, 신용보험 등을 포함한 손해보험업무, 둘째, 생명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등을 포함한 생명상해보험 등의 업무에 전부 혹은 일부분을 운영할 수 있다.

외국보험사는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의해 사정한 것에 따라 대규모 위험에 대한 보험업무 및 통관신고서 총괄보험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외국보험사가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동시에 처리할 수는 없다.

외국보험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보험 관리조례」 제15조 규정에 따라 재보험의 출재(出再) 및 수재(受再)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외국보험사의 구체적인 업무범위, 업무지역 및 서비스대상범위는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되며 외국보험사는 정해진 범위에서만 영업활동을 할 수 있다.

4) 설립절차

외국보험사가 설립신청서를 중국보험감독위원회에 제출하면 보험감독위원회는 이에 대해 기초심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를 결정한 다음 정식 신청서를 발급한다.

신청인은 정식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년내에 설립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사정이 있을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감독위의 결정은 자동으로 실효된다.

설립계획서 제출 후 신청인은 ① 설립계획보고서, ② 설립회사의 정관, ③ 설립회사의 출자자 및 출자액, ④ 출자증명서, ⑤ 회사 주요 책임자의 임명장, ⑥ 회사의 최고관리인원 명단, 경력 및 재직자격증명서, ⑦ 회사 설립 후 3년간의 경영계획 및 재보험방안, ⑧ 중국내에서 판매하려는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약관, 보험요율 및 책임준비금 계산 설명서, ⑨ 영업장소와 업무와 관련된 기타 시설 자료, ⑩ 설립하려는 자회사의 세무, 채무를 보증할 수 있는 본사의 책임담보서, ⑪ 합자보험공사 설립시 합자경영에 대한 계약서, ⑫ 기타 중국보험감독위원회가 규정하는 문건 등을 구비하여 승인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중국보험감독위원회는 외국보험사 설립신청을 위해 작성한 정식 문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60일내에 승인 혹은 불가 결정을 내려야 하며, 승인이 결정되면 영업허가증을 발급한다.

다. 중국정부 내부의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견해³⁴⁾

WTO 가입에 따라 중국정부는 보험주체, 영업지역 및 업무범위 등 보험시장 개방에 대한 일정표를 제시하였는바, 이는 중국시장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외국보험사에 좋은 정보가 될 것이다. 인구수,

34) 본절은 보고서 저자 중의 한 사람인 자오시권 교수가 인민은행, 대외경제무역협작부, 보감원 등 중국정부의 보험전문가들과 인터뷰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임. 따라서 중국정부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는 정부관계자들의 시장개방에 대한 그들 내부의 보수적인 시각이라고 이해할 수 있음.

연령구조 및 양호한 경제전망으로 향후 중국의 국내 보험시장의 발전추세가 여전히 과점경쟁으로 가더라도 시장에 진입하는 외국보험사에는 여전히 큰 발전공간을 제공한다.

그러나 외국보험사 향후 발전전망이 반드시 낙관적이라고 인식하는 전문가는 많지 않다. 외국보험사가 중국보험사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방되는 중국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며, 심지어 중국보험사를 M&A할 것이라는 가정은 외국 본사의 역사, 자본규모, 업무 및 이익창출능력 등 이론적인 자료를 고려할 때 가능한 일이지 중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외국보험사의 시장점유율 확대는 순조롭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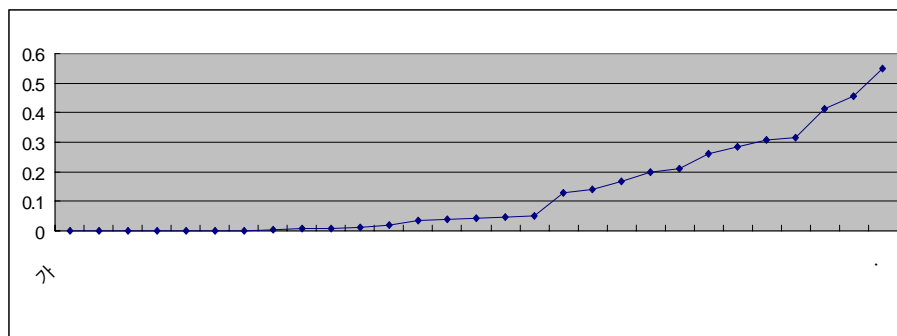
현재 정부내에는 시장개방을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으며, 반대로 개방하더라도 외국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을 최고 15~18% 수준으로 억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³⁵⁾ 다시 말해 보험시장의 개방은 중국 보험산업의 체질 개선을 위한 역할을 해야지 외국보험사가 중국시장을 장악하는 창구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논리이다. 선진 관리경험과 기술도입으로 ‘民族產業’의 육성이 필요하며, ‘자주권’이 없는 개방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신중국 설립 이전인 1805~1945년 중국의 보험시장은 완전히 외국보험사에 의해 장악되었다. 중국보험사들은 그 명맥만 유지하였을 뿐 외국보험사의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렀고, 재보험시장의 경우 100% 외국보험사가 장악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중국정부나 중국인으로 하여금 외국보험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다. 인민의 인식수준이 아직 국제화와 거리가 있기도 하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수입품 사용을 인정하는 반면 자본이 직접 해외로 유출되는 것(즉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35) 宋鐵軍(1998), 『叩響中國保險業大門外資保險公司在中國』, p. 23.

한편 선진국의 경우에도 실제 보험시장을 개방할 경우에는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OECD(2000)가 발표한 관련 자료에 따르면 31개 국가 중 헝가리, 아이슬란드, 터키 등 8개 국가는 외국인 독자보험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전체 국가의 60%에서 외국인 독자보험사의 비율이 5% 미만이었다. 아일랜드, 그리스, 포르투갈, 멕시코, 캐나다 등 5개국만이 30%를 초과하였고, 외국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30% 이상인 국가도 10개에 불과하다(그림 V-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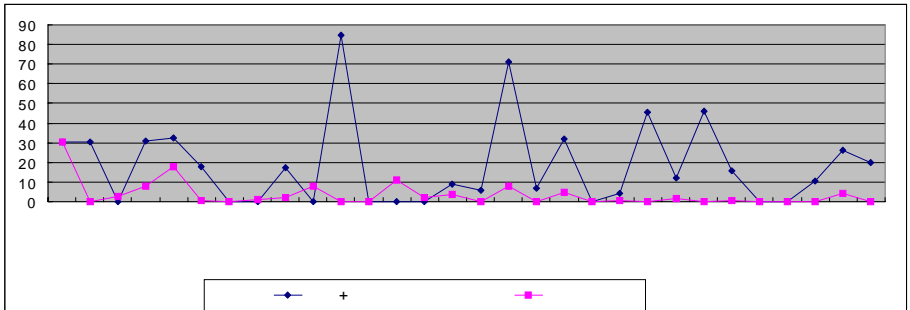
〈그림 V-2〉 OECD 국가의 외국인 독자보험사 비율



자료: OECD(2001),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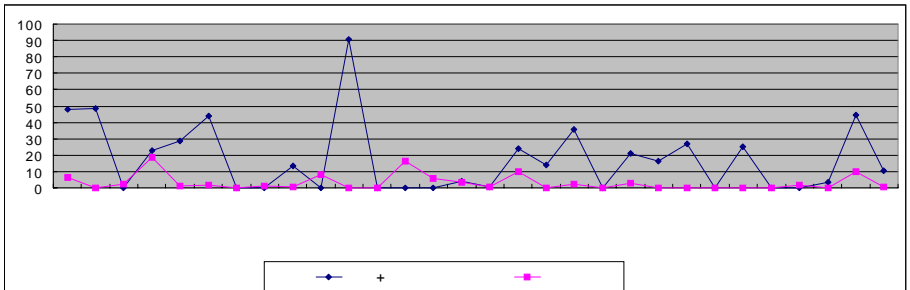
일국의 개방 정도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즉 시장점유율을 비교해보면 각국의 합자기구 및 외국인 독자보험기구의 시장점유율은 많이 다르나 보통 독자기구의 시장점유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 생명보험사를 보면 OECD 국가의 합자기구의 시장점유율은 0에서 미국의 84.7%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부분 30% 이하이며 외국인 독자보험기구의 점유율은 기본적으로 5%를 넘지 못한다. 손해보험시장의 개방이 생명보험에 비해 크다는 특징도 있다. 이는 현실세계에서는 선진국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시장, 특히 생명보험시장의 개방에는 매우 신중함을 보여준다(그림 V-3, 그림 V-4 참조).

〈그림 V-3〉 OECD국가의 외국 생명보험사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 OECD(2001),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그림 V-4〉 OECD국가의 외국 비생명보험사 시장점유율 현황



자료: OECD(2001),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따라서 WTO 가입이 모든 외국인에게 보험시장을 개방한다는 것은 아니다. 또한 중국 보험시장의 발전과 함께 외국보험사도 발전공간을 확대하겠지만, 이미 진출한 외국보험사가 향후 주도적인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외국보험사는 자체의 경영상황과 중국시장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수립한 다음 중국시장 진출을 결정해야 할 것이다. 2002년 6월 ‘스위스생명’이 광둥성 광저우에서 영업허가증을 받기 직전에 중국시장 철수를 결정한 사실은 중국의 도처에 많은 기회가 있다고만 생각하는 외국 보험사가 한번쯤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사례이다.³⁶⁾

3. 외국보험사의 경쟁력 평가

가. 경쟁우세 분석

1) 중국정부의 우대정책

개혁·개방 초기 중국은 외자기업의 중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각종 우대 조치를 실시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3減2免’ 정책을 들 수 있는데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득세율을 15%로 적용하며 또한 이익 발생 후 2년간은 면세, 이후 3년간은 50%만의 소득세를 징수한다. 또한 혜택기간이 만료 후에도 선진기술 도입 기업에 대해서는 3년 연장하여 10%의 소득세를 징수하고, 지방소득세는 5년간 면세, 이후 5년간은 50% 징수 등의 혜택을 준다. 반면 중국보험사는 30%의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상기와 같은 별도의 혜택도 없다.

그리고 외국보험사가 해외금융시장을 통해 보험료를 운용할 수 있는 데 비해 중국보험사는 투자대상이 은행저축, 국채, 신용등급 AA+인 채권, 기금 등 수익성이 낮은 국내 금융상품에 국한되어 있다.

2) 자체적인 경쟁우위

정책상의 우대 이외 외국보험사는 자산, 업무능력, 관리경영능력, 인력 등의 측면에서 우위를 갖고 있다.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의 자산 총액은 50억 위안 미만이나 1개의 중등규모 외국보험사의 실제 보유자산은 1,000억 달러 이상이다. 반면 중국의 전체 보험사 자산은 겨우 3,374억

36) 스위스생명의 사례에 대해서는 KIEP 북경사무소(2002), 「중국 보험시장 진출, 철저한 현지화가 관건」, 중국경제현안브리핑(02-52)을 참조.

위안에 불과하므로 향후 외국자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중국에 진출하게 된다면 외국보험사의 자본우세는 더욱 명확히 드러날 것이다.

업무능력 면에서도 수백년의 역사와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는 외국보험사는 서비스의 품질과 보험료 운영 및 상품개발에서 중국 보험기구에 비해 월등한 우세를 보이고 있다. 단순경영에서 혼합경영으로, 위험보장과 자금관리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은 현재와 같이 이자율이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각 보험사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특히 기업의 영업활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품개발측면에서 외국보험사는 국제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상품을 개발할 수 있다. 2000년 한해 동안 AIA 등 5개 외국보험사는 15개 이상의 신상품을 출시하였는데, 특히 太平洋-Aetna생명이 출시한 '安安婦嬰保險(산모, 아기 평안보험)'와 상하이 AIA의 15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어린이 배당보험'은 상당한 인기를 끌었다.

한편 중국정부의 업무제한 규제도 반드시 외국보험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시장에서 외국보험사는 해외기업의 각종 보험과 중국내 외자기업의 재산보험 및 이와 관련한 책임보험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중국 현지 기업과 개인의 재산 및 책임보험은 감독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런데 이러한 제한이 오히려 우량고객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³⁷⁾ 외국보험사들은 마케팅을 보다 외자계 대기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지멘스, 상하이 GM 등 지명도가 높은 우량기업들의 보험을 독점하게 된 것이다.

37)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기업 가운데 중국기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외자기업이 위험발생요인이 적다고 볼 수 있는 바 정부의 규제조치는 결과적으로 자연스럽게 Lemon(위험발생 가능성이 높은 집단)과 Plum(위험발생 가능성이 낮은 집단)을 스크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음.

인재 측면에서도 외국보험사는 높은 임금과 유연한 인사정책으로 인재를 흡수하고 있다. 2000년도 기준 외국보험회사에 근무하는 인력 중 박사, 석사, 학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중국보험사를 훨씬 상회한다. 전문대 이상 학력소지자 비중은 외국보험사가 48%인데 비해 중국보험사는 18%에 불과하다.

나. 경쟁열세 분석

1) 정책상의 제한

외국보험사는 중국정부로부터 영업 및 지역범위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보험기금의 축적, 보험요율 인하 등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전략을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 법정재보험 가입이나 법정 책임준비금 같은 규정도 외국보험사에는 불리한 조항이다.

WTO 가입과 함께 이러한 진입규제들은 최소한 3~5년은 지속될 것인바, 이는 외국보험사의 초기 시장지배력을 낮추는 영향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시장개방은 보험감독기관의 대외교류를 늘려 감독능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야기할 것인바, 이는 외국보험사의 도덕적 해이 또는 비합법적 영업행위를 감시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³⁸⁾

2) 중국적 특수성과 중국보험사간 전략적 제휴

보험산업은 여타 금융산업 또는 제조업에 비해 목표시장인 중국의 민중 문화나 심리와 같은 중국적 특수성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외국보험사가 중국시장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중국시장의 특수성을 잘 이해해야지 무조건 글로벌 스탠더드를 강요해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38) 외국보험사가 중국보험사에 비해 더 부도덕적이지는 않겠지만, 외국보험사는 오랜 역사와 선진기술을 통해 중국 보험제도의 취약점을 이용한 상품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음.

또한 관리서비스와 상품개발 측면에서도 중국 소비자의 특징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AIA는 1995년 보험모집인제도의 도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뒀지만, 1996년에는 보험료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원인으로는 앞에서 지적한 중국보험사의 벤치마킹 이외에 ‘舊 보험증서 분쟁’의 영향도 컸다. ‘구 보험증서’란 신중국 설립 이전 외국열강이 사실상 중국을 강점하였을 때 AIA가 발행할 보험증서를 말하는데 과거 AIA의 철수로 보험금을 받지 못했던 고객이 이제 다시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1996년 당시 AIA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였으나,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AIG 산하 AIA와 신중국 설립 전 AIA를 구별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해 AIA는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는바 중국 진출을 모색하는 외국보험사들은 이러한 사례를 충분히 참고해야 한다.

한편 중국보험사간 전략적 제휴도 외국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로 중국내 보험산업이 비교적 발달한 지역에서는 1980년대부터 각 업체간 고객 쟁탈, 보험료 인하 경쟁, 수당 인상 등 무질서한 경쟁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역내 동업조합을 세우고 이를 점차 손해, 생명, 자동차 등 각 상품의 보험요율위원회 등으로 세분화되었다. 보험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사 모두 대외개방으로 외국금융사와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는바 금융업체간 전략적 제휴의 증대는 외국보험사의 영업경로를 잠식할 수 있다.

3) 영업망의 제한

중국정부는 외국보험사의 지점 설치를 지역별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중국보험사는 이미 전국적으로 수천 개의 지점과 수만 개의 대리점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보험사가 대도시를 중심으로 영업활동을 하더라도 중국보험사는 이미 고객흡입력이 높은 지역마다 영업점을 확보해 놓고 있다. 따라서 외국보험사는 대도시에서도 고객모집이 쉽지 않을 수 있다.

4. 외국보험사의 중국 진출 전망

WTO 가입 후 보험에 관련된 새로운 합의규정이 적용되면 그 영향도 신속히 드러날 것이다. 가입 전에 비해 외국보험사의 진입이 더욱 자유롭고 대부분의 업무 및 지역 제한이 점차 폐지되고, 합작기업의 지분비율과 독자기구 설립 제한 등도 완화될 것이다. 시장개방의 확대에 따라 외국보험사의 진출은 늘어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외국기업간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

시장개방과 함께 외국기업에 제공되던 세제혜택도 취소되거나 중국보험사의 영업세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 외국보험사는 처음에는 외자계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손해보험시장에서 빠르게 그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며, 점차 전체 보험시장의 50%를 차지하는 생명보험시장에서 시장경쟁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생명보험시장에서는 중국보험사와 외국보험사간의 경쟁뿐만 아니라 외국보험사간의 경쟁도 확대될 것이다. 재보험시장의 경우 외국보험사는 현재 유일한 업체인 ‘중국재보험공사’와 경쟁구도를 취할 수도 있지만, 만일 특정한 외국보험사가 중국재보험공사와 합작관계를 성사시킨다면 외국보험사 중에서 재보험시장을 선도하는 업체가 될 것이다.

중국보험사의 시장점유율이 급격히 감소하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방효과는 나타날 것인바 외국보험사는 향후 2~8년내에 도약기를 맞이할 것이며, 또한 앞으로 3~5년이 중국 보험시장의 경쟁구도를 확립하는 데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이다.

VI. 한국보험사의 중국 진출에 대한 시사점³⁹⁾

1. 투자 방식의 선택

외국보험사가 중국에 진출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투자방식은 독자 또는 합작일 것이다. 실제로 2001년 말까지 기진출한 외국보험사의 경우 독자와 합작비율이 각각 절반씩 차지하였다.

개방 초기 외국보험사는 단독투자형태로 많이 진출하였다. 합작투자의 경우 지분비율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여 외자측의 경영통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합작과정에서 중국측 파트너에 경영기술, 노하우 등이 노출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시장에 비교적 초기에 진출한 AIG, Winterthur(스위스), 일본도쿄화재 등이 대표적인 기업들이다.

합작투자형태는 2000년까지만 해도 그리 선호되는 방식은 아니었다. 金盛생명, 太平洋-Aetna, Allianz-大衆, 中宏생명 등 4개사만이 합작투자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2001년 중국정부가 생명보험의 경우 반드시 합작투자 방식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마련함에 따라 합작투자기업의 수가 크게 늘어났다.

가. 단독투자방식

단독투자방식은 외국보험사가 중국의 관련 법률, 법규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서 자주적으로 경영관리를 추진하고, 독립채산제를 실행할 수 있다.

39) 본질의 집필에는 현대화재해상보험 북경대표처의 方仁彪 소장의 도움이 컸음을 밝힌다. 방인표 소장은 본 보고서의 다른 부분에서도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었다.

또한 합작파트너와 무관하게 외국측의 독자적인 의사결정으로 신속하게 자신의 목표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법률적 책임이 해외본부에 있으므로 고객에 대한 신뢰성 면에서도 유리하다.

반면 현지에서 발생한 영업이익을 해외재보험 등의 방식을 통해 본국으로 쉽게 이전하기 쉽고, 심지어 탈세행위를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보험감독기관의 낙후된 감독능력에 비추어 외국보험사 지사와 본사간의 빈번한 금융거래를 제대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중국당국은 현지화 서비스가 필요한 생명보험의 경우 WTO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에는 단독투자방식을 불허하고 있다.

나. 합작투자방식

중국정부나 중국보험사의 입장에서 합작투자는 독자에 비해 장점이 훨씬 많다고 볼 수 있다.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합작보험사에 대한 관리, 감독이 수월하고 탈세 및 불법적인 이윤 이전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중국보험사는 외국보험사로부터 선진적인 기술을 습득하여 불필요한 투자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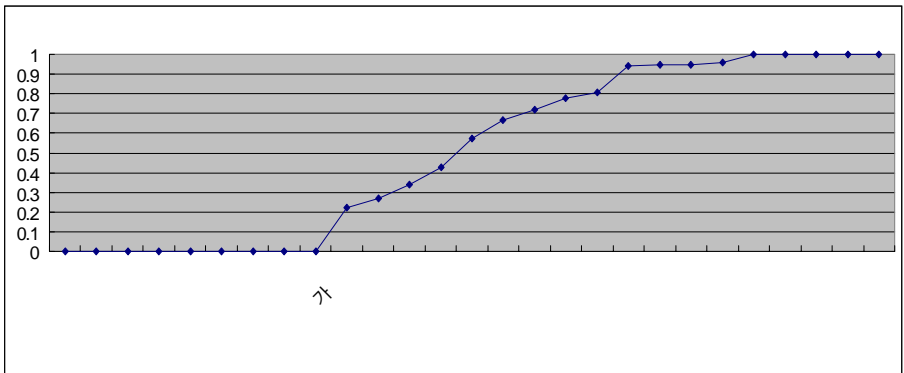
그러나 실질적인 의미에서 중국정부가 생명보험시장 진입에 반드시 합작투자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이상 중국에 진출하려는 한국보험사가 독자투자를 선택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외국기업의 입장에서도 합작투자가 반드시 독자투자에 비해 불리한 것은 아니며 다음과 같이 오히려 더 좋은 혜택을 누릴 기회를 제공한다.

1) 현지 정보 획득에 용이

합작사를 통해 중국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고, 현지화의 속도도 높일 수 있다. 중국측 파트너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판매망

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외국보험사가 목표시장에 진출할 때 합작투자방식이 더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VI-1 참조). OECD 31개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 중 합작방식을 선택한 보험사가 전체의 66%이었고, 이들의 시장점유율도 독자투자에 비해 높았다.

〈그림 VI-1〉 OECD 국가에 진출한 외국보험사 중 합작투자 비율



자료: OECD(2001),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2) 기술이전문제

외국파트너는 합작투자를 선택할 경우 자신이 보유한 선진적인 기술 등 기업의 무형자산이 중국측 파트너로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중국보험사는 외국보험사로부터 되도록 더 많은 기술을 이전받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보험업의 경우 제조업과 달리 기술이전문제가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협상과정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물론 보험감독 기관은 합작보험사의 설립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기술이전 합의서」를 요구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그런 예는 없었다. 실제로 요구한다고 해도 보험산업과 같은 서비스업에서 지적재산권을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더욱이 외국보험사가 경영모델, 정산기술, 자산부채관리기술 및 컴퓨터시스템 등을 구체적인 형태로 이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

일반적으로 합작회사에서는 중국측 보험사의 소수 인사만이 합작사의 임원이 되고, 일반 직원은 외국보험사의 직원교육 프로그램에 따라 업무능력을 습득하는데 이들이 받는 직업훈련은 대부분 기초 영업기술에 집중된다. 따라서 경영관리, 정산기술, 신상품 개발 등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이전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외국보험사는 비보험사를 합작파트너로 선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중국측 파트너는 기술이전이나 경영권 획득에 별 관심이 없어 독자투자와 유사한 혜택을 볼 수도 있다.

3) 이윤의 본국 송금

일반적으로 외자기업은 현지에서의 영업이익을 재투자하거나 본국에 과실송금을 할 수 있다. 과실송금은 중국의 법규상 전혀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다. 보험업의 경우 과실송금 이외 해외재보험에 가입하는 형식을 통해 영업수입을 본국으로 이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윤의 본국송금은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4) 경영권 통제

합작투자의 관건은 합작파트너간의 협력에 있다. 중국에 진출한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애로사항을 조사하면 대다수 기업이 합작파트너와의 불화를 지적한다. 보험산업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측 파트너의 경영능력이 높지 않아 합작사의 사장은 외국보험사가 맡아 경영을 책임지지만, 합작사의 이사장은 중국측이 선출하고 또한 이사장도 경영상의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마찰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실제로 2001년 한해에

만 상하이시 소재 외국보험사에서 3명의 사장이 중도에 물러났는데 그 원인이 바로 CEO의 의사결정이 이중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보험사가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보험시장을 잘 모르고 규모가 크지 않은 비보험사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 근래 외국보험사들이 대형 국유기업을 파트너로 선택한 이유도 이러한 경영권의 안정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3) 기타 진출방안

독자 또는 합작투자 이외 외국보험사는 중국보험사에 대한 지분참여, 기술합작 등의 방식으로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WTO 가입 후 외국보험사는 독자나 합작투자방식 이외에 중국보험공사에 대한 지분참여, 기술합작 등도 시도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한 합작투자의 자격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세계적인 자본력을 가진 외국의 대형 보험사에는 큰 진입장벽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합작사 설립시 최소 출자자금이 1,000만 달러에 불과하다는 것이 불만일 수 있다. 합작사에 더 많은 자본금을 투자하려고 해도 중국측 파트너의 자본능력에 한계가 있고, 또한 본사의 입장에서 이 정도 규모의 합작사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일부 외국보험사는 우선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시장에 진입하여 중국시장을 파악한 후 점진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리려는 전략을 사용한다. 예를 들어 다수의 외국자본이 泰康생명과 新華생명에 지분을 참여하였으며, 독일의 DKV가 기술투자형식으로 平安보험과 건강보험상품을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이다.

한편 아직 사례는 없지만 M&A를 통해 진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앞으로 중국시장에서 파산 또는 배상능력이 부족한 중국보험사가 생길 때 이

를 M&A하는 것이다. 1990년대 말 아시아 금융위기 발생 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금융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

4) 한국보험사의 합작파트너 선택 전략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국보험사가 중국시장에서 얼마나 잘 정착할 수 있는가는 합작파트너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중국 보험산업의 발전상황을 볼 때 한국기업은 비보험 금융기관이나 비보험기업을 합작파트너로 고려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다. 이들은 보험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합작사의 경영을 한국보험사에 일임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국보험사는 적은 지분을 갖고도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경영 및 관리의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현재 중국의 금융업이 종합금융사형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비보험 금융기관과 파트너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장차 중국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브랜드파워 강화와 현지화 가속

보험이란 상품의 판매는 무엇보다도 현지화가 중요하다.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보험사는 중국 고객들에게 충분히 브랜드인지를 높여야 하며, 신뢰감을 심어주어야 한다. 현지화의 실현이 빠르면 빠를수록 중국 시장에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다.

가. 현지화의 개념

외자기업이 현지화를 실현하려면 우선 현지화의 개념과 시장관을 확립

해야 하는데 이는 각국의 역사, 국정, 도덕규범 등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에 진출하려는 외국보험사는 중국적인 특수성을 지역별로 세분화하는 현지화 전략이 필요하다. 외국보험사가 과거 다른 지역에서 거두었던 성공경험을 중국시장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반드시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현지화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는 주어진 환경을 바탕으로 추진되는 혁신작업이다. 외국보험사가 과거의 경험을 답습하지 않고 중국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현지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은 다년간 축적된 무형자산을 이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장환경에 유연히 대처하는 것이다.

나. 조직과 인재의 현지화

외국보험사가 목표시장에서 효율적인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 상황에 의거하여 해당지역에 적합한 조직구조, 분업, 분배방식 등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적극성 및 창조성을 제고해야 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당지역 시장을 중심으로 현지화 요구에 부합하는 영업직원의 조직과 관리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보험산업에서 인적 자원은 마케팅의 승패를 좌우하는 첫 번째 요인이며, 최종적으로 자본의 효능을 결정짓는 요인이다. 중국에 진출하는 외국보험사가 모두 본사 인력으로 중국에서 영업하기는 불가능하다. 중요한 부문에서는 외국의 고급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 현지에서 채용된 인력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 단순히 마케팅 차원에서 중국인 영업사원이 중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미지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외국인 CEO와 외국인 중간관리자가 의사결정을 지배한다면 해당지역 고객들은 자신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현지화된 기업이 아니라 외국에서 들어온 또 하나의 보험사라고 인식할 것이다. 또한 기업내부 차원

에서도 고위직은 외국인이 맡고 중국인 직원은 하위직에서 승진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면 기업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 신상품 개발과 서비스의 현지화

외국보험사의 입장에서 현지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서비스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외국보험사는 목표시장 고객의 요구, 문화특성, 사회심리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회사의 경영이념, 사회신용환경, 경영전략을 고려하여 새로운 보험상품을 출시해야 한다. 신상품은 중국 고객의 수요에 적합해야 할 것이며, 그 명칭과 실제 혜택 면에서도 현지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별로 차등화된 소득구조와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상품의 다양화도 요구된다.

한편 금융업의 경우 상품과 가격의 차이가 제조업에 비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실제로 어느 한 보험사가 신상품을 개발하면 곧바로 경쟁사도 유사한 상품을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보험사는 고객을 지속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해 대고객 A/S를 중요시해야 한다. 특히 중국보험사는 중국시장에서 상대적으로 긴 시간에 걸쳐 고객과 교류하였지만 외국보험사는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여 고객에게 그러한 신뢰성을 심어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보험사는 현지화전략과 더불어 현지 시장 밀착형 A/S계획을 세워야 하며, 특히 고객의 고발, 계약분쟁 처리, 보험금 지급 조사과정에서 기존의 보험사와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당사자에 대한 직접방문, 위로, 작은 선물증정 등 중국인들이 선호하는 A/S전략이 필요하다.

라. 브랜드 이미지 확립

현재 중국에 진출한 외국보험사는 자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각종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예를 들면 Allianz-大衆생명(Allianz-Da Zhong Sheng Ming)은 상하이시 의료보험 교육센터에 보험의학 연구기금을 설립하고, AIA는 상하이와 선전에 헌혈차를 기증하였으며, 中宏생명(Chong Hong Sheng Ming)은 ‘상하이자선기금’과 함께 ‘中宏 주요 질병 자선지원기금’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보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외국보험사들은 중국내 명문대학에 장학금, 전문교재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기관에 대해서도 연구과제를 지원하고 있다. 예를 들면 미국의 Lincoln은 北京大學(Beihai University)에 보험학과 설립을 지원하였고, 湖南財經學院(Hunan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 復旦大學(Fudan University)에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영국의 CGU는 지난 1994년 西南財經大學(Southwest University of Finance and Economics)과 함께 ‘중국 보험회계사 교육센터’를 설립하였고 이외에 국가중점 회계연구과제인 ‘보험회계문제연구’를 지원한 바 있다(木子 2001). 외국보험사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한편 수준 높고 현지화된 인력도 양성하고 있다. 또한 각종 학술연구 활동을 지원하면서 지명도를 높이고, 중국 보험산업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있다. 기진출한 한국기업 중에는 이러한 이미지전략을 적절히 사용한 예가 다수 있는바 한국보험사들도 외국보험사나 다른 한국업체의 경험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3. 중국기관과의 전략적 제휴

대부분의 외국보험사가 중국에 진출한지 3~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장 적응기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 업

체는 중국보험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현지화에 성공하고 본격적인 영업망 확대에 나서고 있다.

AIG는 2000년 12월 平安보험과 전략적 제휴를 통해 그룹산하의 보험사가 平安보험의 중국내 서비스망을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고, 平安보험은 AIG의 전 세계 영업망과 직원교육프로그램, 신상품 개발, 고객서비스, 및 재보험 관련 경영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이전받았다. 한국의 삼성화재도 인민보험공사의 선전지사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단기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다.

다른 금융기관, 특히 은행과의 합작(방카슈랑스방식)도 외국보험사들이 고려하고 있는 전략 중의 하나이다. 중국시장에서 전통적인 대리점을 통한 보험상품의 판매가 고비용과 시장의 제한성이라는 문제점을 야기하자 외국보험사들은 은행과의 전략적 제휴를 또 다른 판매채널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표 VI-1〉 중국과 주요국 은행의 생명보험 판매율(2001년)

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스페인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독일	중국
비율	60%	39%	74%	40%	13%	54%	19%	3.3%

자료: 『21世紀經濟報道』, 2002년 11월 11일자.

은행과의 제휴는 은행지점망을 판매채널로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시장과 고객을 관리하여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은행은 대량의 고객정보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며, 고객의 신뢰 또한 크기 때문에 외국보험사는 은행과의 합작을 통해 영업을 확대할 수 있다. AIA 선전지사는 공상, 농업, 중국, 건설은행 등 16개 은행의 지점망을 통해 보험료의 온라인송금, 위탁접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중국보험사들도 최근에 수수료 경쟁을 하면서 은행창구를 이용한 보험

판매를 늘리고 있는데 베이징의 경우 2002년 상반기 동안 은행을 통한 생명보험의 판매수입이 전년 동기비 220% 증가한 17억 위안을 기록하였다. 이는 베이징시 전체 생명보험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아직 중국 전체로는 은행에서의 판매비율이 낮은 편이지만(3.3%, 표 VI-1 참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과 증권업의 통합도 최근 현실화되고 있다. 중국생명(中國生命)은 연합증권(聯合證券)과 보험업무대리, 고객자원공유, 보험상품 공동개발, 자산관리업무 등의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보험사와 증권사의 업무 제휴는 보험사가 자금운용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 보험시장에서는 국내투자처를 찾기가 매우 어려운 형편이다. 외국보험사가 중국시장 진입 초기에 증권사를 합작파트너로 선택한다면 영업망의 확대뿐만 아니라 중국시장에서 자금을 운용하는 노하우를 습득할 수도 있다.

한편 전략적 제휴는 아니지만 보험감독기관을 포함한 정부기관과의 협력을 증진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AIA, Lincoln, 일본생명 등이 다른 외국 보험사에 비해 비교적 적응기간이 짧았던 이유 중 하나는 이들이 정부내 인사들과 활발히 교류하였기 때문이다. 일부 한국기업가는 편지를 중국공무원에게 뇌물을 주는 것 정도로 잘못 알고 있는데 이는 결코 그렇지 않다. 앞에서 수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정부는 자신들의 보험감독능력을 매우 부족하다고 평가한다. 위의 기업들은 보험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을 위해 본국 또는 현지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하였으며, 여기서 교육 받은 공무원들이 현재 보험 관련 부서에서 요직을 맡고 있다.

4. 한·중 관계의 특수성

오랜 기간 중국과 한국은 외교관계가 없어 한국보험사의 중국 진출은 다른 국가에 비해 늦어졌다. 1992년 수교 후, 양국간 경제, 무역관계가 급증함에 따라 삼성화재가 1994년과 1995년에 베이징과 상하이에 대표처를 설립하였다. 다른 외국보험사에 비해서는 진출시기는 다소 늦었지만, 중국의 시장개방확대정책에 따라 삼성화재는 2000년 영업허가증을 획득한 최초의 한국보험회사가 되었다. 한국 보험회사들은 짧은 진출시기의 보완을 위해 향후 중국보험사 및 감독기관과의 합자와 교류를 강화하고 아울러 중국시장에 대한 상세한 시장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과 한국은 지리적 근접성과 역사, 문화, 도덕관 등 공통점이 많고 양국 정부가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는 사실은 한국보험사의 중국 진출에 큰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장기적인 전략을 갖고 양호한 브랜드이미지를 창출하고, 동시에 방관적인 이익추구자가 아니라 중국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주도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參考文獻

- 李建立. 2002. 『중국의 노령화사회 도래와 정부 대책』. KIEP 북경사무소
한중경제포럼 발표자료(2002-10).
- 馬明哲. 1999. 『挑戰競爭-論中國民族保險業的改革和發展』. 商務印書館.
- 馬明哲. 1998. 『繁榮危機』. 華光報業有限公司.
- 馬永僞. 2001. 『加快改革開放步伐, 促進保險市場的繁榮和發展』.
- 馬鳴家. 1994. 『中國保險市場』. 中國商業出版社.
- 馬洪, 王夢奎 主編. 2002. 『中國發展研究』. 中國發展出版社.
- 馬洪 主編. 2002, 2003. 『中國市場發展報告』. 中國發展出版社.
- 孟龍. 2002. 「加入WTO中國的保險監管面臨考驗」. 『保險研究』, 第2期.
- 木子. 2001. 「保險人才爭奪起狼煙」. 『中國保險』, 第4期.
- 裴光. 2002. 『中國保險業競爭力研究』. 中國金融出版社.
- 範恒山·管理年 主編. 1999. 『中國保險市場』. 湖北人民出版社.
- 孫建中. 1999. 「對我國保險業發展的歷史分析和前景預測」. 『保險研究』, 9월호.
- 孫祜祥 等. 2000. 『中國保險業: 矛盾, 挑戰與對策』. 中國金融出版社.
- 宋鐵軍. 1998. 『叩響中國保險業大門外資保險公司在中國』. 中國人民出版社.
- 吳蘇平 主編. 2001. 『加入WTO對中國壽險業的影響和對策』. 中國金融出版社.
「外國保險公司帶來甚末?」. 『人民日報』, 2001년 11월 23일자.
- 魏華林·李開斌. 2002. 『中國保險產業政策研究』. 中國金融出版社.
中國統計出版社. 『中國統計年鑒』, 各연호.
- 中國保險監督管理委員會. 『中國保險年鑒』, 各연호.
- 陳文輝 主編. 2002. 『中國壽險業的發展與監管』. 中國金融出版社.
- OECD. 2001. *Insurance Statistics Yearbook*.
- Sigma-Aldrich Corp. 2000. Sigma, No. 4.

Executive Summary

The Competitiveness of the Chinese Insurance Industry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Euihyun Choi, Zhao XiJun, and Jinhoon Woo

In this research paper, we explain the background and recent history of the Chinese insurance industry, the competitiveness of the insurance industr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companies interested in this sector.

The insurance market in China has grown rapidly over the past 20 years. There are now four state-owned insurance and reinsurance companies in China. The four companies, owned by the State council, are Peoples Insurance Co, China Life, China Insurance and China Reinsurance. This some state-owned companies heavily controlled insurance market. In life and property insurance market, top four companies account for 90 percent of market share.

Despite of the rapid growth during reform period, the insurance industry remains in its infancy stages. In 2000, the insurance density was US\$13.3 per capita compared to \$4,643 in Switzerland and \$3,909 in Japan. Insurance penetration is only 1.79 percent, well below most developed nations, which, for the most densely populated country in the world, suggest strong growth potential.

As the most populous nation in the world, the insurance industry in China

has substantial room to expand. First, the industry ranked 16th globally in 2000 in terms of gross insurance premiums, with a global market share of about 0.79 percent (as compared with 35.4 for the United States, 20.6 for Japan and 9.7 for the UK). Second, it ranked 73rd in terms of insurance density, with \$13.3 per capita in 2000. Third, it ranked 61st in terms of insurance penetration with 1.79 percent.

Foreign participation in the mainland market was first permitted in 1992 in Shanghai, and now there are 27 foreign insurance branches in China. These companies have not seen reveal substantial management outcomes until now. However, its entry into the WTO will lead to the removal of many entry barriers within two or three years, helping foreign companies enjoy an improved investment environment. In addition, WTO membership is set to help China improve its regulatory framework. China will tend to incorporate international best practice, including more developed prudential regulations and improved disclosure.

However, developing the insurance market will not lead directly to increased insurance premiums on the part of foreign companies. Foreign companies, including those from Korea, need to gain credibility for Chinese customers. Only localized companies will be able to gain competitiveness in the Chinese insurance market.

KIEP 발간자료목록(1997~2003. 10)

■ 지역리포트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사점	朴英鎬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金恩志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요인 분석	朴映坤
01-03	유럽경제통화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鄭厚榮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 정부의 지원정책	朴映坤
01-05	유라시아 경제공동체(EEC)의 출범과 CIS 경제통합의 전망	河由貞
02-01	중국 장강삼각주 권역의 투자환경	吳東胤 · 林泓修
02-02	일본 수입축진정책의 주요 내용 및 평가	金恩志
02-03	EMU 회원국들의 거시경제정책 운영현황과 평가	朴映坤
02-04	러시아 토지소유권 제도개혁의 성과와 과제	河由貞
02-05	인도의 정보기술산업 발전현황과 한·인도간 협력방안	崔允靜
02-06	UAE의 외국인투자 유치정책	裴嬉娟
02-07	최근 뉴질랜드 경제호황의 배경과 시사점	權耿德
02-08	東아시아의 産業內貿易 增加 推移와 示唆点 - 韓·日의 對ASEAN 貿易을 중심으로	朴在旭
03-01	헝가리 경제개혁의 추진현황과 평가: 금융개혁을 중심으로	李哲元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崔義炫 · 趙錫軍 · 禹辰勳

■ 지역연구회시리즈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鄭銀淑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방향	吳勇錫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元容杰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李榮洙 · 徐煥周
00-05	日·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申志鎬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朴濟勳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화 축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蔡熙律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張善德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金正混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KIEP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嚴久鎬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楊平燮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金讚沅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金昌男 · 千寅鎬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高在模 · 全載旭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辛源龍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尹玄德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李殷九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金泳世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朴繁洵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李忠烈
01-04	일본의 버블붕괴와 잃어버린 10년	姜應善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鄭基虎 · 李滿基
01-06	두만강 개발 10년의 평가와 전망	沈義燮 · 李光勛
01-07	1980~90년대 브라질 산업구조 변화와 한국의 산업협력방안	尹澤東
02-01	우리나라와 미국 주식시장 동조화 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과 전망	李忠彥
02-02	1990년대 일본 해외직접투자의 패턴 변화와 한국의 대응	程勳
02-03	쿠바의 경제개혁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金鍊鐵
02-04	Municipal Finance in Selected European Transition Economies: Institutional Framework and Regional Development	Chang Woon Nam
03-01	말레이시아의 외환위기와 이슬람 정책	吳明錫

■ 정책연구

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王允鍾
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王允鍾 編著
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金準東
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崔秀雄
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金鍾範
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李鍾華 · 李晟鳳
97-07	韓 · 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王允鍾 · 羅秀燁
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李昌在 外
97-09	東아시아 貿易 · 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金南斗 外
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趙明哲
97-11	韓 · 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鄭余泉
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金元鎬 外
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金寬浩 外
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趙顯竣

98-0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1997.12~1998.6) : 綜合深層報告①	張亨壽 · 王允鍾
98-02	中國 金融改革的 현황과 과제	李章揆 外
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王允鍾 · 金琮根
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 관한 탐색연구	權泰亨 外
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成克濟
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王允鍾 編
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柳在元 · 李弘求
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과급효과	李昌在 外
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李晟鳳 · 李炯根
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李晟鳳 外
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張亨壽 · 李昌在 · 朴映坤
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崔秀雄
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開展方向	徐錫興
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Byung-il Choi · Eun Mee Kim
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張亨壽 · 元容杰
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鄭仁敎
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金寬浩 · 李性美
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尹昌仁
98-19	中 · 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현황과 전망	鄭余泉 · 崔秉熙 · 韓貞澈
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趙明哲 · 洪翼杓
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全載旭 · 崔義炫
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曹琮和 編
99-02	韓 · 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金元鎬 編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	金博洙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	王允鍾 · 鄭在完 · 金琮根 · 李鴻培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	曹琮和 編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s)평가	安炯徒 編著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①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	李昌在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②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	鄭仁敎 外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 (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②	黃祥仁 · 王允鍾 · 李晟鳳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③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	李晟鳳 外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④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	王允鍾 外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蔡旭·金準東·宋有哲·尹美京·徐暢培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	金準東·姜仁洙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	鄭余泉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	崔洛均·李明憲·朱文培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漳源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	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的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	鄭仁教·李景姬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蔡旭·金準東·梁俊哲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	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	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	尹昌仁 外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	趙明哲·洪翼杓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방안	蔡旭·崔洛均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換·庾相喜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	李鍾華
00-16	農產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	宋有哲·朴芝賢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부문의 변화	南相烈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	黃祥仁·金寅培·辛仁錫
01-04	韓·日 FTA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01-05	APEC 무역원활화의 경제적 효과	金尙謙·林仁元
01-06	동아시아의 통화협력 구상: 역내 환율안정을 중심으로	曹琮和·金于珍
01-07	다자무역내 정부조달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WTO를 중심으로	梁俊哲·金鴻律
01-08	북한의 경제회복을 위한 자본수요 추정과 적정 투자방향의 모색	尹德龍·林淳讚
01-09	EU 확대와 한국의 대응전략: CGE모형 분석을 중심으로	李鍾華·林淳讚
01-10	주요국 농업정책 변화와 WTO 협상에의 시사점	宋有哲 外
01-11	주요국의 서비스업 시장개방현황과 WTO 뉴라운드 서비스협상: 동신·환경·에너지 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外

01-12	국제관세의 비교분석 및 부문별 무세화협상의 경제적 효과: WTO 뉴라운드 공산품협상에의 시사점	崔洛均 外
01-13	신통상의제 관련 주요국 정책현황과 WTO 뉴라운드협상에의 시사점	尹昌仁 外
01-14	WTO 무역분쟁의 추이와 한국관련 분쟁사안에 대한 종합평가 및 정책시사점	蔡旭 · 徐暢培
02-01	DDA 총점검-2002	崔洛均 外
02-02	농업의 비교역적 관심사항: DDA 농업협상 대응방안	宋有哲 · 朴芝賢 · 李載玉 · 林頌洙
02-03	DDA 서비스협상의 주요 쟁점 및 정책 대응방향: 법무 · 시청각 · 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金準東 · 高俊誠 · 具文謨 · 朴淳讚
02-04	DDA 비농산물 시장접근협상의 논의동향과 국제관세율 구조분석	崔洛均 · 鄭在皓
02-05	DDA 규범분야의 논의동향과 개정방향	姜文盛 · 魯在峯 · 李鍾華
02-06	DDA TRIPS 분야의 유전자원 관련 논의와 한국의 대응	尹美京 · 崔允僖
02-07	DDA 무역과 개발분야의 논의동향과 대응방안	南相烈 · 權栗
02-08	DDA 협상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분석	崔洛均 · 朴淳讚
02-09	동아시아 주요국의 환율전가에 관한 분석	姜三模 · 王允鍾
02-10	미국 경상수지적자 확대가능성과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姜文盛 · 羅秀燁
02-11	EMS의 운영성과와 동아시아에의 시사점	尹德龍 · 鄭在植 · 曹琮和
02-12	FDI와 무역의 상호연계성에 관한 연구 - 한국의 對中 투자와 일본의 對韓 투자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李章洙
02-13	한·일 FTA와 일본의 유통장벽	金良姬 · 趙炳澤
02-14	한국기업의 대중국 권역별 진출과 전략	池晚洙
02-15	ASEAN 주요국의 산업·교역구조 분석	權栗 · 金玠慶
02-16	중국 유통산업 개방과 활용전략	趙顯垓
02-17	1990년대 이후 한·미간 무역구조의 변화	梁俊哲 · 金鴻律
02-18	체제전환국 사례를 통해본 북한의 금융개혁 시나리오	尹德龍 · 鄭衡坤 · 南英淑
02-19	중동 주요국의 교역구조 분석 및 한국의 對중동 통상확대 전략	金興鍾
02-20	동북아 비즈니스 거점화 전략의 기본방향 - 주요 비즈니스 거점의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李昌在
02-21	韓·中·日 IT 산업의 戰略的 提携 현황과 향후 전략: 知識連繫를 중심으로	洪裕洙
02-22	미국의 통상정책 결정 메커니즘과 한국에의 시사점	金鴻律
02-23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경영현지화에 관한 연구	白權鎬 外
02-24	베트남 자본시장 현황 및 발전방향	朴大權 · 楊斗鏞 · 吳奎澤 · 金恩京
02-25	한·중·일 3국의 산업간 상호의존관계 분석 - 국제산업연관모델에 의한 실증연구	李鴻培 · 岡本 信廣
02-26	북한경제 백서	趙明哲 외

■ 조사분석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	鄭在完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	鄭在完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	李哲元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	徐承源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	鄭在完·權耿德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	李聖揆·崔秉熙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產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97-09	中國의 에너지產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	崔義炫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	蔡 旭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취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李鎬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產業의 現況과 展望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 投資制度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鄭仁教·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과제	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鄭聖哲·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합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朴泰鎬·文字植·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金裕燦·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 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金琮根
00-01	투명성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朴映坤 · 金于珍 · 羅秀燁
00-02	주요 이슈별 韓 · 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梁俊哲 · 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的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金元鎬 · 姜文盛 · 羅秀燁 · 金眞梧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張亨壽 · 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鄭在完
01-02	아프리카 시장특성 분석 및 한국의 수출확대 방안	朴英鎬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孫讚鉉 · 尹眞那
01-04	WTO 農業協商 대비 주요 쟁점분석 및 정책시사점: 국제기구 논의동향을 중심으로	宋有哲 · 朴芝賢
01-05	韓 · 日 자유무역협정이 외국인투자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점	金良姬 · 金鍾杰
01-06	南北韓-러시아 3자간 철도협력의 논의동향과 정책과제	鄭余泉
01-07	한국의 對중남미 수출성과 분석과 향후 과제	權奇洙
01-08	싱가포르 개방경제체제의 평가와 전망	權 栗
01-09	멕시코의 공적자금 관리실태와 시사점	金眞梧
01-10	중 · 동구 주요국의 금융구조조정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李哲元
01-11	병행수입에 대한 WTO TRIPS 논의: 공중보건과 제약산업을 중심으로	尹美京 · 李性美
01-12	北韓의 시장경제교육 실태와 南北 협력방안	趙明哲
01-13	북한의 경제특구 확대 가능성 및 발전방향	洪翼杓
02-01	미국 부시행정부의 대외통상정책과 시사점	姜文盛 · 羅秀燁
02-02	아프리카 건설시장 특정분석 및 한국의 시장확대 방안	朴英鎬
02-03	WTO 농업협상 제2단계 각국 제안서 분석	宋有哲
02-04	병행수입에 대한 경쟁정책의 적용: 한국과 일본의 사례 비교분석	尹美京 · 李奎億

저자약력

崔義炫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제학 석사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KIEP 중국실 및 북경사무소 주재원(1995. 5 ~ 2003. 2)

청운대학교 중국학과 교수(現, E-mail:yxcui@chungwoon.ac.kr)

著書 및 論文

“Reform of the Financial Institutions in China: Issues and Polices”(2002)

「중국 섬유산업의 산업내무역 패턴에 관한 실증적 연구」(2002)

「한·중 수출경쟁력 분석: 미국 및 일본시장을 중심으로」(2001) 외

趙錫軍

武漢大學 불문학系 졸업

中國人民大學 財政學系 碩士

中國人民大學 財政金融學院 經濟學 博士

中國人民大學 金融學系 教授 및 金融與證券研究所 副所長

(現, E-mail:xijun@public.beta.net.cn)

著書 및 論文

『證券投資分析』(2003)

『中國證券業現況與WTO挑戰』(2002)

『證券投資學』(2002) 외

禹辰勳

경북대 지질학과 졸업

영남대 경영학 석사

中國人民大學 商學院 경제학 박사

北京工商大學 상임경제연구소 연구교수(現, woojinhoon@hanmail.net)

著書 및 論文

『현대중국의 이해』(공저, 2002)

『중한 유통산업 비교연구』(1999) 외

지역리포트 03-02

중국 보험산업의 경쟁력과 한국기업의 진출전략

2003년 10월 10일 인쇄

2003년 10월 15일 발행

발행인 **安忠榮**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선명종합인쇄사 (02)2277-0056 대표: 김용선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 · 複製를 금함】

ISBN 89-322-6065-6
89-322-6017-6(세트)

정가 7,000원

The Competitiveness of the Chinese Insurance
Industry and Its Implication for Korea

Euihyun Choi, Zhao XiJun, and Jinhoon Woo

중국의 보험산업은 은행, 증권 등 여타 금융산업에 비해 개방의 충격이 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다. 중국 보험산업은 그동안 정부의 보호하에 독점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었지만, 앞으로 외국기업의 진입이 늘어나면서 경쟁구조로 개편될 것이다. 대외개방은 중국 보험산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이 시장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에도 매력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그런데 보험상품은 일반적인 제조업 제품이나 다른 금융상품과는 달리 상품 자체의 경쟁력 이외에 보험사의 신뢰성 정도가 판매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을 포함하여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외국기업은 조속한 현지화의 실현이 요구된다. 또한 중국측에 방관적인 이익추구자가 아니라 중국시장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는 주도적인 참여자로서의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對外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시 서초구 염곡동 300-4
TEL : 3460-1178 FAX : 3460-1144



7,000원